



2021 사회적경제 연구

1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정책보고서 202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조상미 · 정희수 · 조정화 · 박윤세 · 간기현

【책임연구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

【공동연구진】

정희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과정연구원 박사

조정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박사수료

박윤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간기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박사과정

제출문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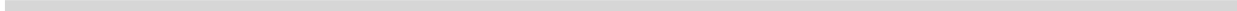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17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차 <<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9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사회적기업과 재정지원사업	13
1. 사회적기업의 개념	13
2.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14
3. 재정지원사업의 과정과 내용	17
가. 재정지원사업의 과정	
나. 재정지원사업의 내용	
제2절 사회적기업의 성과	22
1. 경제적 성과	
2. 사회적 성과	
제3절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25
1. 성장단계	
2. 성장단계의 구분	
제3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29
제1절 연구대상	31
제2절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32



- 1. 재정지원 내역 (2012~2020년) 32
- 2. 기업현황 34
 - 가. 인증시기
 - 나. 인증유형
 - 다. 조직형태
 - 라. 소재지
- 3. 지원내역 41
 - 가. 재정지원(정부+민간) 현황
 - 나. 정부지원사업
 - 다. 민간지원사업
- 4. 재정성과 45
- 5. 고용성과 46
- 6. 사회서비스 제공 48
 - 가.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 나.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제4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51

- 제1절 연구내용 53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제2절 연구방법 55
 - 1. 연구대상
 - 2. 자료수집
 - 3. 분석방법
 - 가. 주요 변수 측정 : 독립변수
 - 나. 주요 변수 측정 : 종속변수
- 제3절 연구결과 63
 - 1. 응답자 및 기업 일반사항 63
 - 가. 응답자 일반사항 및 특성
 - 나. 응답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사항 및 특성
 - 다. 응답 사회적기업의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 2.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67

가.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나. 재정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다.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3.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개인, 조직, 생태계	71
가. 재정지원사업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나. 재정지원사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다.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79

제1절 연구내용	81
제2절 연구방법	82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2. 연구참여자	
3. 자료수집 및 분석	
제3절 연구결과	86
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3.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4.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제6장 결론 및 제언 103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05
제2절 제언 및 함의	108

참고문헌 115

부록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양식	121
부록2: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설문지	123
부록3: 서울시 사회적기업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134

표 목 차

〈표 2-1-1〉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14
〈표 2-1-2〉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및 판단기준	16
〈표 2-1-3〉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17
〈표 2-1-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9
〈표 2-2-1〉 사회적기업 성과의 측정	23
〈표 3-1-1〉 세부사업 내용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파악	31
〈표 3-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내역 (2012~2020년)	33
〈표 3-2-2〉 사회적기업 인증시기	35
〈표 3-2-3〉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36
〈표 3-2-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38
〈표 3-2-5〉 사회적기업 소재지	39
〈표 3-2-6〉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정부+민간)	41
〈표 3-2-7〉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사업 (2020년)	43
〈표 3-2-8〉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사업 (2020년)	45
〈표 3-2-9〉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	46
〈표 3-2-10〉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47
〈표 3-2-11〉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49
〈표 3-2-12〉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50
〈표 4-1-1〉 연구문제 및 가설	53
〈표 4-2-1〉 주요 변수 설명: 독립변수	58
〈표 4-2-2〉 주요 변수 설명: 종속변수	61
〈표 4-2-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62
〈표 4-3-1〉 응답자 개인 일반적 사항	63
〈표 4-3-2〉 응답 기업 일반사항	65
〈표 4-3-3〉 응답 기업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66
〈표 4-3-4〉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67
〈표 4-3-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68
〈표 4-3-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68

〈표 4-3-7〉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69
〈표 4-3-8〉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70
〈표 4-3-9〉 재정지원사업 참여 수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70
〈표 4-3-10〉 재정지원사업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72
〈표 4-3-11〉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73
〈표 4-3-12〉 재정지원사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74
〈표 4-3-13〉 재정지원사업이 거버넌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	74
〈표 4-3-14〉 재정지원사업이 경영지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75
〈표 4-3-15〉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76
〈표 4-3-16〉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77
〈표 4-3-17〉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78
〈표 5-1-1〉 FGI 연구문제	81
〈표 5-2-1〉 FGI 참여자	83
〈표 5-2-2〉 FGI 참여기업 조직현황	84
〈표 5-2-3〉 FGI 연구 일정 (2021년)	85
〈표 5-2-4〉 FGI 질문 내용	85
〈표 5-3-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분석 결과	86
〈표 5-3-2〉 인증사회적기업 이행과정 분석 결과	88
〈표 5-3-3〉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92
〈표 5-3-4〉 서울 혁신형 사업 참여 영향 분석 결과	98
〈표 6-1-1〉 결과요약	105
〈표 6-2-1〉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13

[그림 1-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방법	9
[그림 2-1-1] 연도별 사회적기업 현황	15
[그림 2-1-2] 연도별 전체 근로자(취약계층) 수	15
[그림 2-1-3]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	16
[그림 2-2-1]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모형	26
[그림 2-2-2] Timmons의 기업 성장 4단계 모형	27
[그림 3-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내역(2012~2020년)	34
[그림 3-2-2] 사회적기업 인증시기	35
[그림 3-2-3]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37
[그림 3-2-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38
[그림 3-2-5] 사회적기업 소재지	40
[그림 3-2-6]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정부+민간)	41
[그림 3-2-7]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사업 (2020년)	43
[그림 3-2-8]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사업 (2020년)	45
[그림 3-2-9]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47
[그림 3-2-10]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49
[그림 3-2-11]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50
[그림 4-1-1] 연구문제 1-1 연구모형	54
[그림 4-1-2] 연구문제 1-2 연구모형	54
[그림 4-1-3] 연구문제 1-3 연구모형	54
[그림 4-1-4] 연구문제 2 연구모형	55
[그림 4-2-1] 자료수집 절차	54
[그림 4-3-1] 응답 사회적기업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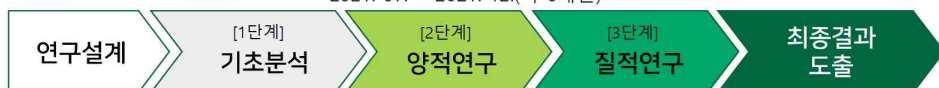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 점차 심화되는 다종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
- **사회적기업 양적 확대** : 적극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이룸.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쟁점** : 사회적기업 초기 창업 단계에 재정지원 집중.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결여 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짐.
- **재정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조사와 분석, 탐색을 통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장,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기초분석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2단계]	양적연구	서울시 사회적기업 온라인 서베이를 위한 문항개발 및 전수조사 진행
[3단계]	질적연구	사회적기업 성장단계 정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진행
최종결과 도출		향후 지원방식 및 내용 모색 등 실천적 함의를 통한 자원확보 방안 도출

2021. 07. ~ 2021. 12.(약 6개월)



3. 주요 연구결과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 **재정지원내역(2012~2020년):** 인증사회적기업은 2012년 174개소 -> 2020년 51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정부지원금도 전반적으로 증가함.
- **기업현황:** 인증사회적기업은 2007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임. 일자리제공형, 「상법」에 따른 회사의 비중이 높음. 소재지는 영등포구 > 은평구 > 종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내역:** 2020년 정부지원 14,809백만원, 민간지원 30,406백만 원으로 민간지원이 정부지원의 약 2배임. 2020년 정부지원금은 일자리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 순으로 나타남. 2020년 민간지원금은 기타지원 > 일반기부 > 모기관지원 > 기업후원 > 민간금융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재정성과:** 총 매출액은 2,085,421백만원으로, 평균 4,146백만원, 중앙값 556백만원임. 총 당기순이익은 26,363백만원, 평균금액 52백만원이며, 총 영업이익은 5,924백만원, 평균금액 12백만원으로 나타남.
- **고용성과:** 총 유급근로자는 13,461명으로, 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 보다 약 20% 높음.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977천원으로, 총 유급근로자 보다 낮고, 비취약계층보다 높음.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에서는 큰 편차가 나타났으며, 기타 > 교육 > 문화 예술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3,784,724명으로, 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의 약 9배에 달함.

□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사회적 성과 인식이 높았음. 세부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에 비해 경제적 성과 인식과 사회적 성과 인식이 모두 높았으며,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경제적 성과 인식과 매출액 모두 높게 나타남.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정부지원사업 총액이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 부분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거버넌스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생태계 부분에서도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3 요약

□ 서울시 사회적기업 포커스그룹 인터뷰

-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기도, 급격한 매출 상승을 경험하기도 함. 코로나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음.
-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과정**
 - **인증전환 그룹:** 재정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있으나, 재정지원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지정중단 그룹:** 예비사회적기업 당시 재정지원은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의 피로도, 서류행정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음.
-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 **창업 그룹:** 재정지원사업은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자산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함.
 - **성장 그룹:**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줌. 성장기 스케일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의 필요.
 - **성숙 그룹:** 재정지원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로 보는 프레임의 변화가 요청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 혁신형 지원사업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추어 지원하여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됨. 몰입을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은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었음.

4. 제언

□ 발전적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

- 직접 재정지원 방식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창업, 성장, 성숙 단계)
- 인적자원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나눠주기가 아닌 효과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시 혁신형 사업에 주목
- 재정지원 프레임의 변화가 요청됨. : 지원이 아닌 투자와 자원 확보의 프레임으로
- 소상공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식 개선에 도움을 받음.
- 재정지원 사업과 함께 서울 혁신형 사업을 포함한 정부지원이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 :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

*주요용어: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정부지원,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혁신형 사업, 코로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 내고 있다. 일상 회복이 다시 멈추어지고,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2021년 11월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6만 1154명으로,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률은 59.2%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 가량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1). 이와 같이 점차 심화되는 다종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발전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021)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 2021년 11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3,142개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시작과 비교하여 57배가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반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비판과 쟁점도 존재한다. 지원이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1). 더 나아가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결여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조사와 분석, 탐색을 통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재정 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실증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재정지원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데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향후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보다 고도화된 지원 방식과 정책으로 수렴될 것이다. 또한 국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이며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로서 첫째, 사회적기업 사업 보고서 기초분석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셋째, 서울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그림 1-1-1).



[그림 1-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방법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분석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한다. <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 현황, 지원내역, 재정성과, 고용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2-2020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내역을 기준으로 정부 매칭 4대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서울시 고유 지원사업인 혁신형 사업 지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양적 연구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이다. 우선 효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온라인 서베이 조사 실시를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양적통계 분석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838개소로 이를 전수 조사하여, 정부지원사업¹⁾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차이분석, 지원사업이 개인, 조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질적 연구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탐색이다. 예비에서 인증으로 전환한 사회적기업, 예비에서 지정종료한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성숙) 사회적기업, 서울 혁신형 사업 참여 그룹을 나누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한다. 연구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이행과정,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지원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위의 3가지 연구 방법과 내용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함의와 효과성 증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지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피하고 스케일업(Scale-up)에 기여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목표를 지닌다.

1) 정부지원 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기타지원(서울시 혁신형 사업 등을 포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기업과 재정지원사업

제2절 사회적기업의 성과

제3절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2

이론적 배경 <<

제1절. 사회적기업과 재정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국가 또는 사회마다 요구되는 목표와 정치·사회적 환경 등 상이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비영리기관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자립에 대한 요구 속에서 출현하였다(조상미 등, 2018).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체로서 대두되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최흥근, 유연우, 201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공공의 이해를 위해 수행되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EMES²⁾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며(〈표 2-1-1〉),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며, 낙후된 지역사회의 재생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

2) EMES 네트워크는 L'É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의 약자로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유럽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네트워크이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www.emes.net)

내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표 2-1-1〉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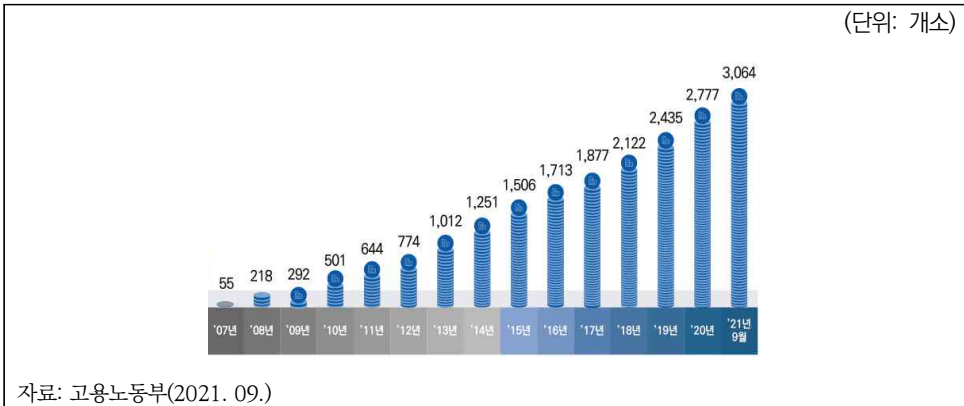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자율성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최소한의 유급 노동	지역사회에 기여 시민 주도 설립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한적인 이윤배분

자료: Defourny(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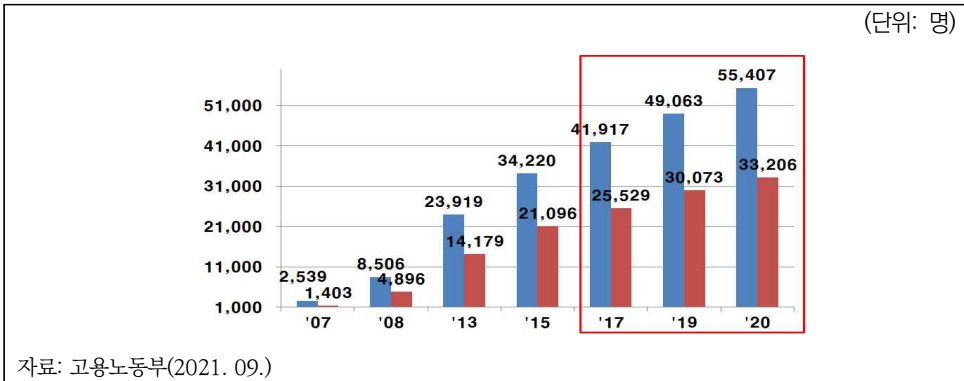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과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균형있게 추구하는 기업’으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높은 자율성을 지니고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조상미 등, 2011).

2.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국내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해왔다. 육성법 제정 이후 77차의 인증 절차를 통해 총 3,627개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3,064개소가 활동 중이다(고용노동부, 2021). 2007년 당시 55개였던 사회적기업의 수는 55배 이상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그림 2-1-1). 전체 고용은 22배, 취약계층 고용은 24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그림 2-1-2), 특히, 지난 2020년에도 고용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1] 연도별 사회적기업 현황



[그림 2-1-2] 연도별 전체 근로자(취약계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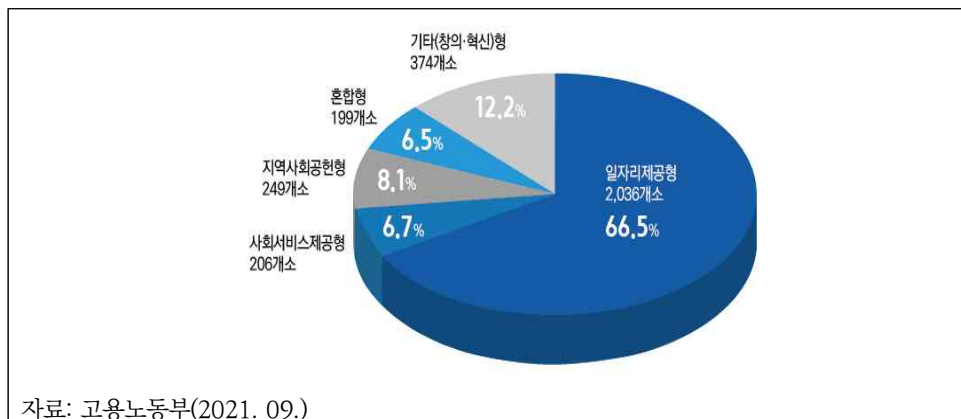
또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인증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일 경우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되며, 그 밖에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 불가할 경우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및 분류된다(표 2-1-2). 일자리제공형이 2,036개소(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창의·혁신)형 374개소(12.2%), 지역사회공헌형 249개소(8.1%), 사회서비스제공형 206개소(6.7%), 혼합형 199개소

(6.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표 2-1-2〉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및 판단기준

인증유형	사회적 목적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 지원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자료: 고용노동부(2021).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그림 2-1-3]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

한편,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산림청,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총 10개 부처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로 갖추고 있으나,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즉, 예비사회적기업은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및 지정 주체, 근거가 되는 법령, 요건, 지원 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표 2-1-3〉),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하는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정부 부처장이 지정하고 있다. 이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역형’으로, 정부 부처장이 지정하는 예비적기업은 ‘부처형’으로 구분하여 중복 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1-3〉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 정관 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인증(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장
인증기한	인증 취소 전까지 유효 (인증요건 갖출 경우 계속)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종료 전 인증으로 전환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3. 재정지원사업의 과정과 내용

가. 재정지원사업의 과정

국가 주도로 시작된 국내 사회적기업은 인증제와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이에 힘입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정선희·조상미, 2018). 영국이나 프

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육성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Teasdale, 2011; 심창학, 2007), ‘고용 불안정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은 국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가진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봉, 2008; 김혜원, 2011; 도수관·박경하, 2014; 황정운·장용석, 2019).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1년 국내 사회적기업의 첫 시험모델인 오픈에스이(Open Social Enterprise)가 설립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상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사건이다(한겨레, 2002; 황정운·조희진, 2016; 황정운·장용석, 2019).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고민하게 되고, 점차 관련 논의가 확산되어 이후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황정운·장용석, 2019).

특히 국내 사회적기업 지원은 2000년대 초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계승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제도이다(한상일, 2013).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영리 기업보다 조직의 운영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있어서(Oster, 1995; 정규진 등, 2013), 정부의 지원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하여(장용석 등, 2015), 정부지원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고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Austin et al., 2006; 정희수·조상미, 2021).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 지원의 핵심이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데에 있다(김재홍·이재기, 2012; 도수관·박경하, 2014; 황정운·장용석, 2019).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있어 사회적기업이 달성하는 양적인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질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저해시켰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립 부분까지도 문제로 이어져 정부에 의존적인 성장 방향을 야기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Wolch, 1990; Hwang & Powell, 2009).

나. 재정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져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창업·성장지원 및 생태계 조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1). 이 중 정부와 민간영역이 사회적기업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재정지원(정부 지원+민간지원)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근거 아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의미의 ‘재정지원사업’과 그 외 ‘기타 정부지원’ 및 ‘정책자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타 정부지원 및 정책자금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장애인고용관련 보조금,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신나는조합, 2020). 각 지원사업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1-4>와 같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육성정책 시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한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비 보조사업의 형태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김재홍·이재기, 2012).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통해 ‘혁신형’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1-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정부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				정책자금	기타정부지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주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수준(인건비+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0만 원/250만 원 한도 • (인증2명, 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 만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연1억 한도 • 예비: 연5천만 한도 • *자부담 1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 도입, 경영안정 등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공간, 창업자금 (1천만 원~5천만 원 사이에 서 차등지급) 등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자금 지원 기업 당 10억 원 이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0여팀 지원계획
지원 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기계·설비 구입자금 8년 이내	
지원 관 정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 2년 (인증)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 2년 (인증)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 2년 (인증)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로 별도의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로 별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2년 이내 사업자 대상으로 연1회 모집으로 1년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재구성

1) 일자리창출사업

-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

홍원, 2021).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³⁾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내부 전문가로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개요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 전문인력은 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

〈경력요건〉

- 전문인력 경력은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및 사용·경력증명서 확인 원시
- 단, 문화예술, 교육, 요식업 분야 종사자, 사업주(대표자) 등 고용보험적용 제외 대상자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경력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용역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자격요건〉

- 국가자격증,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 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력요건〉

- 석·박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 목적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함(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2절. 사회적기업의 성과

성과란 사전적으로 “이루어 내거나 이루어진 결과”로, 한 조직이 특정한 기간 동안 성취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Bovaird & Rubienska, 1996).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성과에 대한 개념도 복합적이다(조상미 등, 2018). 그러므로 복합적 개념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목적이 다양하며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김숙연·김재준, 2013).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성과측정을 위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진민 · 이상식, 2017).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무엇으로 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1.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을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정희수·조상미, 2021). 경제적 성과를 매출과 수익성과와 같은 양적 성과로 보는데(이준희, 2016),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재무와 관련된 결과로 정의하였다(장성희·반성식, 2010; 홍효석·김예경, 2016).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다양한 측정지표들로 측정되고 있다. 우선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로 경제적 성과를 가늠하고 있다(김정인, 2014; 김창범·이찬영, 2015; 이용탁, 2009; 최석현·남승연, 2015; 최준규, 2013).

〈표 2-2-1〉 사회적기업 성과의 측정

구분		측정항목	논문
경제적 성과	객관적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김정인(2014), 김창범·이찬영(2015), 이용탁(2009), 최석현·남승연(2015), 최준규(2013) 등
	주관적 지표	지속적 매출 증가, 지속적 영업이익 증가, 지속적 수익 목표 달성, 재정자립도,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상승 등	Baum et al(2001), McGee, Dowling & Megginson(1995), Merz & Sauber(1995), 조상미 등(2012)
사회적 성과	객관적 지표	취약계층고용율, 취약계층 고용 비율, 정규직 비율, 취업계층 고용 인원수 등	최홍근·유연우(2013), 선남이·박능후(2011), 최준규(2013), 김희철(2015) 등
	주관적 지표	취약계층 고용률 증가, 지역인식 고취, 공익적 사업에 투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률 증가,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 윤리적 기업과 소비에 기여 등	Kanter & Summer(1987), Porter (1995), Mosche & Lerner(2006), 조상미 등(2012)

자료: 조상미 등(2012). 재구성

경제적 성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여러 주관적 지표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즉 지속적 매출증가, 경영자립도 향상, 수익적 목표달성, 고객만족도 상승 등의 주관적 지표로 경제적 성과를 가늠하고 있다(정은경, 2012). 또한 조상미 등(2012)은 사회적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금전적인 성과와 경제적 자립으로 경제적 성과를 정의하였다(강동형, 2013; 이준희, 2016).

사회적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을 통한 수익에 의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재무적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Bagnoli & Megali, 2011).

2. 사회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기업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목적에 의한 산출을 의미하는데(조상미 등, 2018),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이익 중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를 말한다(임경수, 2014).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기타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매우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우선 객관적인 지표로는 취약계층고용률(최홍근·유연우, 2013)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정규직 비율(선남이·박능후, 2011; 최준규, 2013), 취업계층 고용 인원수(김희철, 2015)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자료의 측정과 수집,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기존 연구들이 주관적 평가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조상미 등(2012)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및 사회공헌의 달성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률 증가, 지역인식 고취, 공익적 사업에의 투자 정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률 증가,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김기철·서병덕, 2017),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역주민 인식개선 노력(나선영·이영근, 2014) 등 다양한 주관적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왜곡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준희, 2016; 최준규, 2013).

제3절.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성장단계 구분은 비즈니스 기업에 대한 발전 모형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또한 기업 모형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김민석, 2011).

1.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단계를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기업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며, 각 단계에 따라 전략 및 구조, 각종 경영활동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성장단계는 세분화 정도에 따라 적게는 3단계, 많게는 7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창업-성장-성숙-소멸의 4단계로 구분된다(Kazanjian & Drazin, 1989; 박다인·박찬희, 2018 재인용).

조상미 등(2012)은 Jeannine & Jennifer(2010)가 구분한 단계를 바탕으로 창업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재정리하였다(그림 2-2-1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은 창업에서 생존단계로 그리고 성장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할 때 많은 변화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한 단계의 성공은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Connolly, 2006; 조상미 등, 2012 재인용).

사회적기업의 성장 구분과 관련하여 정선희(2004)는 기업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는데, 1단계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수준, 2단계는 경쟁시장에 막 진입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3단계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수준, 4단계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① 창업단계	② 생존단계	③ 성장단계	④ 성숙단계
		Start-up Seed	Survival Establishment	Growth Establishment	Maturity
정의		- 조직운영 시작	- 사업개시 - 경영시스템 구성 시작	- 이익창출전화 - 운영시스템 정착	- 수익의 안정화 - 브랜드 강화 - 충성고객 존재
특징 및 과제		- 조직유연성 존재 - 창업자 비전 영향력 - 사업기획력, 타당성 평가 중요 - 적합한 인력선발 및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 요구	- 수익창출의 개시 - 사업계획 및 전략수정 -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 요구	- 성장에 따른 효율성 증가 - 새로운 경쟁 압박 증대 - 시장·상품·서비스 확장 도전	- 이익창출 사업 모델 정립 - 지속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투자 요구 - 새로운 효율성 확보 필요

자료: Jeannine Jacokes & Jennifer Pryce(2010), The Life Cycle of Social Enterprise Financing in Succeeding at Social Enterprise, NY: Jossey-Bass, 인용: 조상미 등, 2012 재인용.

[그림 2-2-1]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모형

2. 성장단계의 구분

기업 성장단계 이론은 Chandler(1962), Greiner(1972)가 그 근간을 만들었다. 이후 성장단계 이론은 3단계 모형(Miller & Friesen, 1984; Katz & Kahn, 1978; Gray & Ariss, 1985), 4단계 모형(Kazanjian & Drazin, 1990), 그리고 5단계 모형(Poole & Van de Ven, 1989) 등으로 발전하였다(Bes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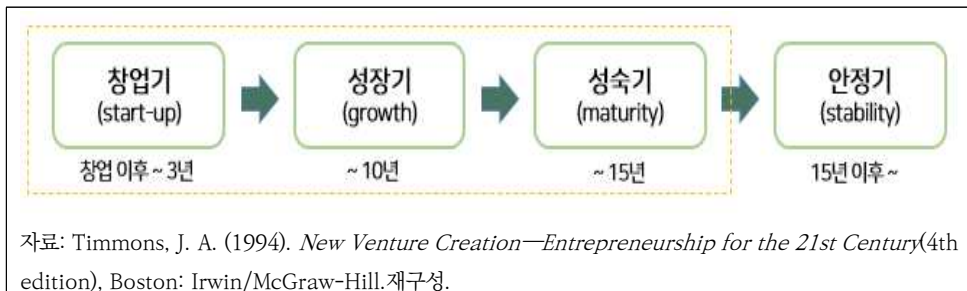
우선 성장단계에 관한 구분은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Kajanjian & Drazin, 1989)과 업력, 규모, 성장률 등 기업의 규모와 관련한 기준을 통해 성장단계를 정하는 방식(Hanks et al, 1993)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영배·하성욱, 2000). 업력으로 구분한 연구로는 4단계 모형을 제시한 Timmons(1994)로, 오랜 현장 경험을 근거로 기업 연령에 따라 벤처 기업의 성장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창업 이후 3년까지를 창업기(start-up), 10년까지를 성장기(growth), 15년까지를 성숙기(maturity), 그 이후를 안정기(stability)로 단계를 나누었는데(이철승·이윤철, 2016), 각 단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의 경우 사업 시작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전달되는 단계이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역량을 다지게 된다. 보편적으로 창업기업은 10년 미만의 기업이며, 창업자가 지배하는 계층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성장기는 창업기를 지나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며, 기업의 초기 역량이 뒷받침되면 핵심역량을 확대,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셋째, 성숙기는 성장기에 비해 자본이 확충되고 시장의 인지도가 확보되어 동원 가능한 자금이 축적된 단계이다. 성숙기는 지속적인 일반 투자 및 R&D 투자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반면 성장이 둔화되고, 제도와 계획 내용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조직의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는 단계이다(이철승·이윤철, 2016).

기업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는 시간의 순서인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Hannan & Freeman, 1984), 이후 세분화하고 체계화해 나가며 기업의 성장단계로 확장해 연구되고 있다. 또한 단계별로 당면하는 위험과 불확실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전략과 구조 및 관리 등 경영 활동의 차이를 다룬다(Miller & Friesen, 1984; Smith, Mitchell & Summer, 1985; Van de Ven, Hudson & Schoreder, 1984; Quinn & Cameron, 1983).

본 연구는 창업-성장-성숙의 구분하여 3단계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2-2-2]).



[그림 2-2-2] Timmons의 기업 성장 4단계 모형



제3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제1절 연구대상

제2절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3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

제1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고자 인증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은 총 518개소로 2008년부터 각 기업의 주요 정보를 작성하여 매해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사업보고서는 기업현황, 재정지원, 재정성과, 사회성과, 의사결정 참여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인증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분석의 자료로 활용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그리고 사업보고서 DB(Database)는 사회적기업들이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되며, 사회적기업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특히,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년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변화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특성을 진단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518개소 중 507개소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2020년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현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표 3-1-1>).

<표 3-1-1> 세부사업 내용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파악

연구 구분	세부 과제	연구 자료	분석 범주	분석 내용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2012-2020년), 서울시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실적	재정지원 내역	사회적기업 수,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
			기업현황	인증시기, 인증유형, 조직형태, 소재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2020년)	지원내역	정부지원, 민간지원
			재정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성과	총 유급근로자 수, 취업계층 근로자, 비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비취약계층 제공인원			

이와 더불어 최신 사업보고서의 탐색과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2020년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기업현황, 지원내역, 재정성과, 고용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보고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최신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절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1. 재정지원 내역 (2012~2020년)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표 3-2-1〉, [그림 3-2-1]). 2012년 174개소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2월 총 518개소로 확대되면서 약 3배로 성장하는 등 뚜렷한 양적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총액도 함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해마다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온 전체 재정지원금은 2020년 14,809백만원으로 2012년 재정지원금 9,741백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내역은 보다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2012~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서울시 재정지원사업 지원실적을 함께 참조하였으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내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한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기타 정부지원이 포함된다. 그 중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타 정부지원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서울시 혁신형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각 세부사업별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정부지원금은 일자리창출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내역별 금액이 다소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재정지원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2012년 6,133백만원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5,900백만원으로 2012년과 유사한 금액으로 회복되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회계·재무 등 분야로 채용하는 전문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2012년 540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865백만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7년에는 4,319백만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금액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R&D비용, 품질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이래로 해마다 평균 약 2,300백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3,000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은 2012~2015년 사회보험료는 0원으로 2016년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2,150백만원으로 나타나 다른 해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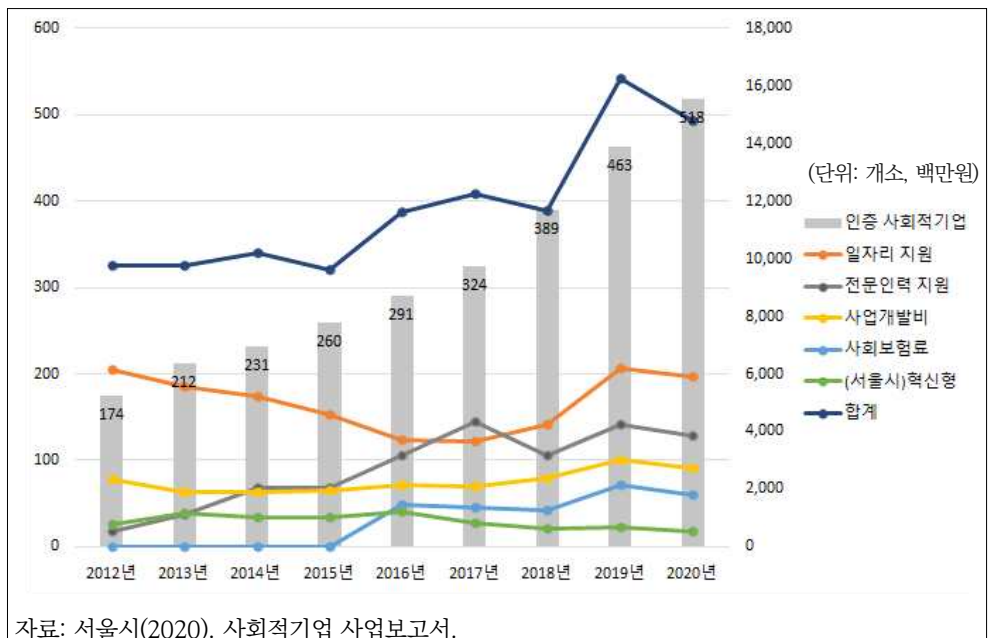
〈표 3-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내역 (2012~202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타 정부지원 (서울시)	합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일자리창출 +전문 인력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 보험료 지원	소계	혁신형 사업	
2012년	174	6,133	540	6,673	2,318	-	8,991	750	9,741
2013년	212	5,567	1,098	6,665	1,909	-	8,574	1,166	9,740
2014년	231	5,241	2,063	7,304	1,879	-	9,183	1,027	10,210
2015년	260	4,603	2,047	6,650	1,951	-	8,601	1,027	9,628
2016년	291	3,690	3,155	6,845	2,130	1,454	10,429	1,208	11,637
2017년	324	3,649	4,319	7,968	2,084	1,370	11,422	816	12,238
2018년	389	4,240	3,149	7,389	2,400	1,254	11,043	633	11,676
2019년	463	6,182	4,259	10,441	3,000	2,150	15,591	657	16,248
2020년	518	5,900	3,865	9,765	2,721	1,800	14,286	523	14,809

자료: 서울시(2012-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사회적경제 관련 내부자료.

기타 정부지원에 해당되는 혁신형 사업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사업 지원은 2012년 750백만원에서 이듬해 1,166백만원으로 약 1.5 배 증가하며 평균 1,100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 2020년에는 523백만원으로 2016년의 4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여, 시기에 따라 각 지원금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내역 (2012~2020년)

2. 기업현황

가. 인증시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2007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제 도입시기인 2007년은 12개소(2.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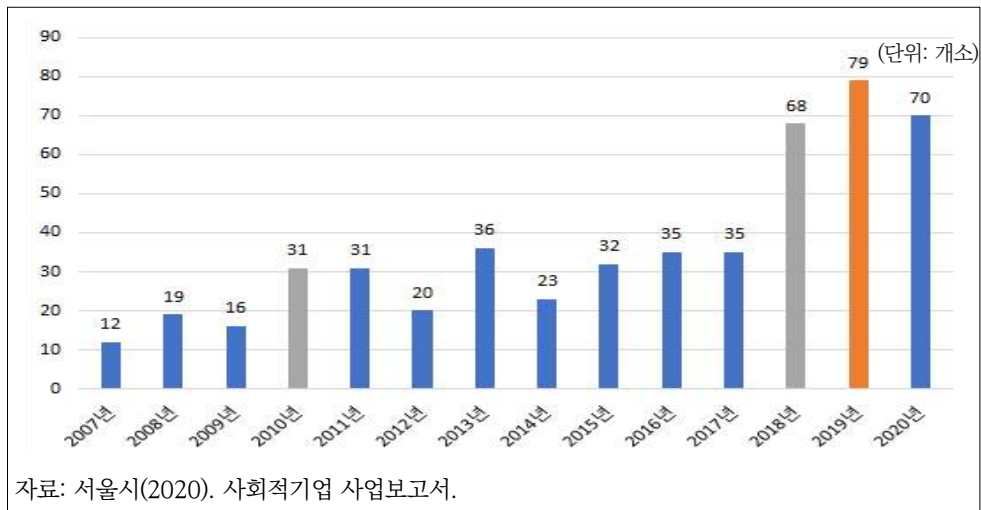
불과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70개소(13.8%)가 인 증받기도 하였다.

〈표 3-2-2〉 사회적기업 인증시기

(단위: 개소, %)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누적 사회적기업
전체	507 (100.0)	507
2007년	12 (2.4)	12
2008년	19 (3.7)	31
2009년	16 (3.2)	47
2010년	31 (6.1)	78
2011년	31 (6.1)	109
2012년	20 (3.9)	129
2013년	36 (7.1)	165
2014년	23 (4.5)	188
2015년	32 (6.3)	220
2016년	35 (6.9)	255
2017년	35 (6.9)	290
2018년	68 (13.4)	358
2019년	79 (15.6)	437
2020년	70 (13.8)	507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2] 사회적기업 인증시기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원정책에 발맞춰 성장하면서 누적 사회적기업이 2007년 12개소에서 2020년에는 총 507개소에 달하며 4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표 3-2-2〉, [그림 3-2-2]). 특히, 2010년에는 31개소(3.2%)와 2018년에는 68개소(13.4%)로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인증사회적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 사회적기업도 자연스레 확대되어져 왔다.

나. 인증유형

인증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증유형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제공형이 263개소(51.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인증유형의 절반 이상으로 혼합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약 8배, 지역사회 공헌형의 약 12배에 달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이 일자리제공형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3〉, [그림 3-2-3]). 이는 전국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이 60% 이상 일자리제공형에 해당되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다음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 156개소(30.8%) > 혼합형 33개소(6.5%)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33개소(6.5%) > 지역사회 공헌형 22개소(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수	507	33	263	22	33	156
비율	100.0	6.5	51.9	4.3	6.5	30.8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3]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여기서 기타(창의·혁신)형은 정량적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이 해당되며, 혼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해당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그 밖에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형태,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조직형태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조직형태의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상법」에 따른 회사가 328개소(6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3-2-4〉, [그림 3-2-4]). 「상법」에 따른 회사는 「민법」에 따른 법인의 약 4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22배에 달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79개소(15.6%) > 사회적 협동조합 44개소(8.7%)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22개소(4.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8개소(3.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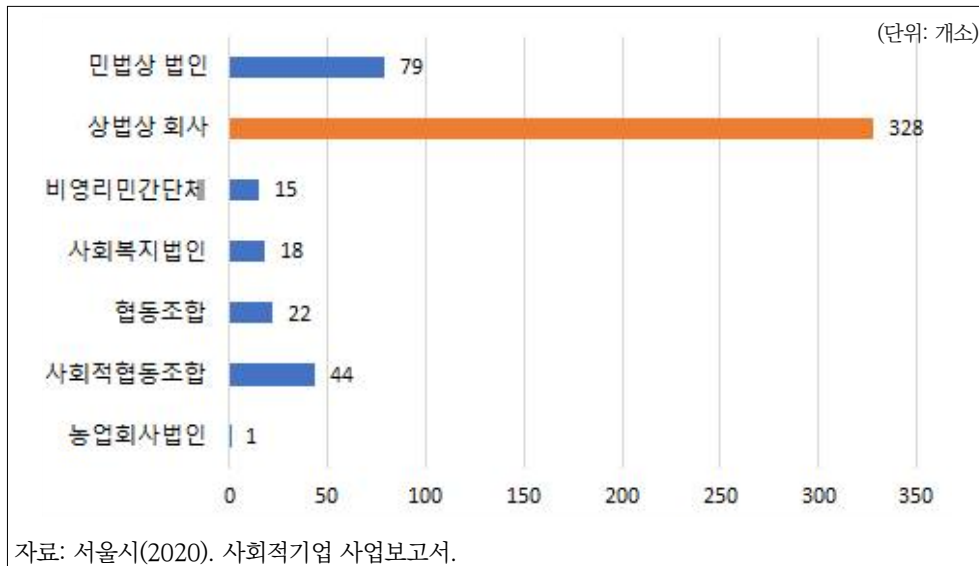
리민간단체 15개소(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단위: 개소, %)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비율
「민법」에 따른 법인	79	15.6
「상법」에 따른 회사	328	6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15	3.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8	3.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22	4.3
사회적협동조합	44	8.7
농업회사법인	1	0.2
전체	507	100.0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라.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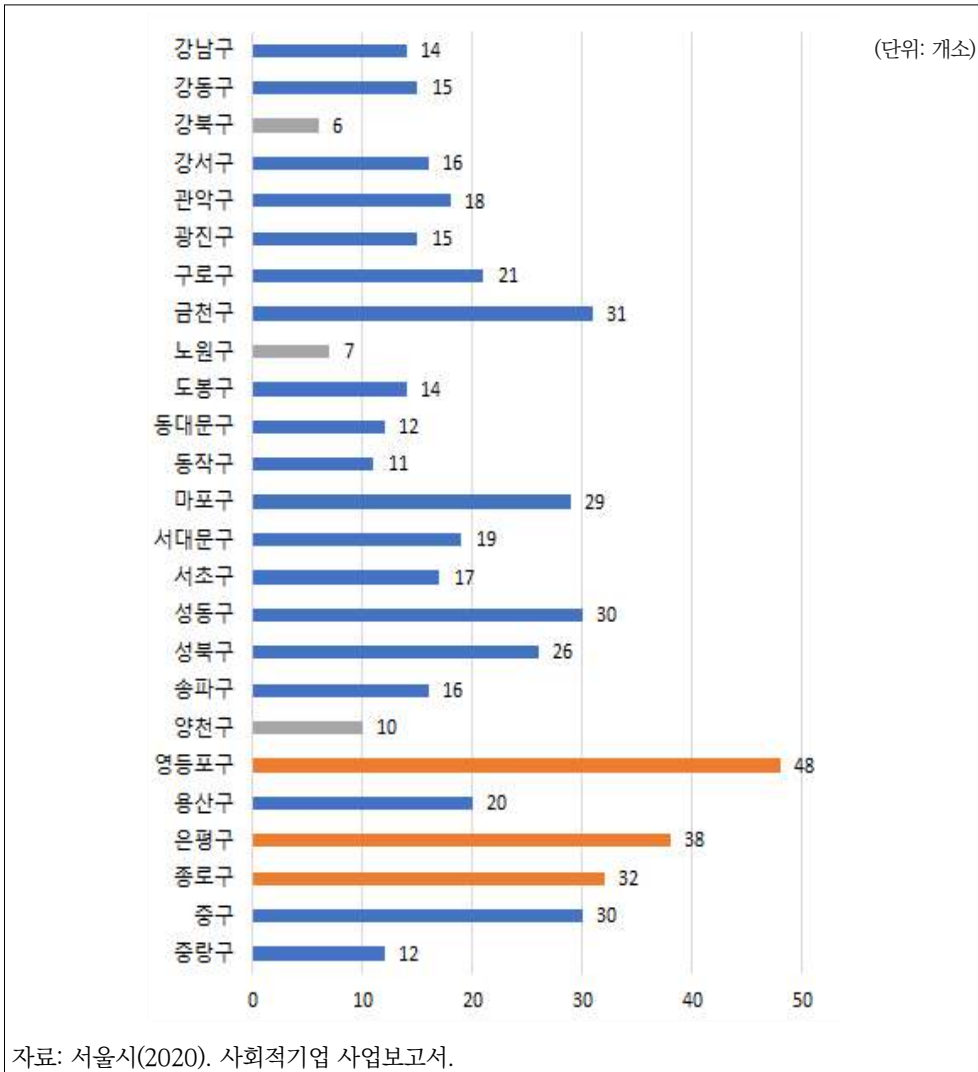
서울지역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사업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 48개소(9.5%)로, 가장 적은 자치구인 강북구의 8배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표 3-2-5〉, [그림 3-2-5]). 다음으로 은평구 38개소(7.5%), 종로구 32개소(6.3%), 금천구 31개소(6.1%), 성동구 및 중구 30개소(5.9%), 마포구 29개소(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북구 6개소(1.2%), 노원구 7개소(1.4%), 양천구 10개소(2.0%)는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저조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3-2-5〉 사회적기업 소재지

(단위: 개소, %)

소재지	인증사회적기업	비율	소재지	인증사회적기업	비율
서울지역 전체	507	100.0	마포구	29	5.7
강남구	14	2.8	서대문	19	3.7
강동구	15	3.0	서초구	17	3.4
강북구	6	1.2	성동구	30	5.9
강서구	16	3.2	성북구	26	5.1
관악구	18	3.6	송파구	16	3.2
광진구	15	3.0	양천구	10	2.0
구로구	21	4.1	영등포구	48	9.5
금천구	31	6.1	용산구	20	3.9
노원구	7	1.4	은평구	38	7.5
도봉구	14	2.8	종로구	32	6.3
동대문	12	2.4	중구	30	5.9
동작구	11	2.2	중랑구	12	2.4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5] 사회적기업 소재지

3. 지원내역

가. 재정지원(정부+민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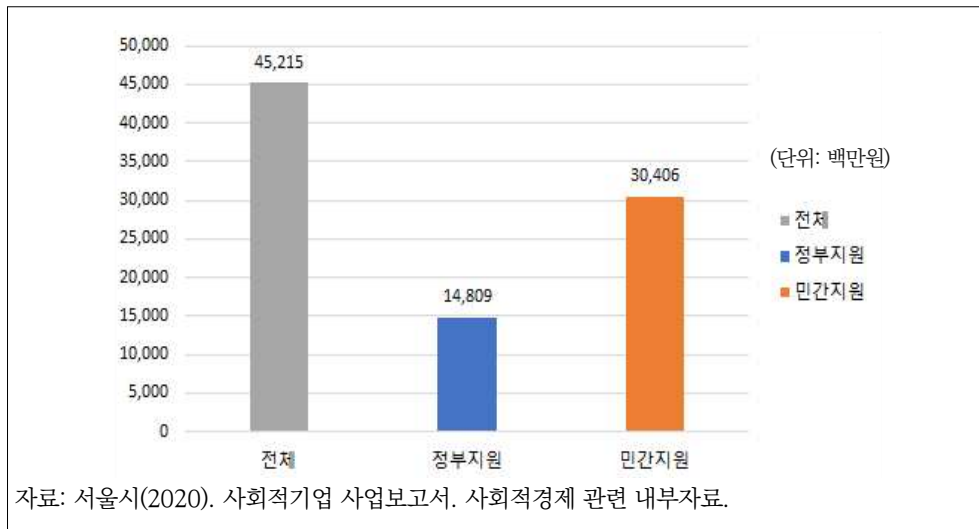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창업지원, 성장지원(판로지원, 경영지원, 자원연계) 등 다각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 중 재정지원(정부+민간)은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지원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되며, 정부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네 가지 항목과 정책자금 지원,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이 해당된다.

〈표 3-2-6〉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정부+민간)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지원 금액	비율
정부지원사업	14,809	32.8
민간지원사업	30,406	67.2
합계	45,215	100

자료: 서울시(2012-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사회적경제 관련 내부자료.



[그림 3-2-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정부+민간)

서울지역의 인증사회적기업도 정부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는데, 2020년 정부지원사업 14,809백만원, 민간지원사업 30,406백만 원으로 민간지원사업이 정부지원사업의 2배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밝혀졌다(〈표 3-2-6〉, [그림 3-2-6]). 재정지원(정부+민간)의 합계는 45,215백만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부지원사업

2020년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사업은 총 14,809백만원으로 23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세부 항목⁴⁾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총 226개소에 총 14,286백만원을 지원하여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은 8개소에 523백만원하여 약 4%에 그쳤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금액은 일자리창출사업 5,900백만원(39.8%) > 전문인력 지원사업 3,865백만원(26.1%)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721백만원(18.4%)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800백만원(12.2%) > 기타 정부지원(혁신형 사업) 523백만원(3.5%) 순으로 나타났다(〈표 3-2-7〉, [그림 3-2-7]).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2020년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78개소에 총 5,900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1인당 '2,006,070원/월'을 지원한 금액으로,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822,480원)+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83,590원)'를 지원하였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51개소에 총 3,86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 75%, 시비 25%로 지원하며, 월 최대 200만원(또는 250만원)까지 지원하였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40개소에 총 2,721백만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연간 1억원까지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57개소에 1,8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4) 정부지원사업의 세부항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기타 정부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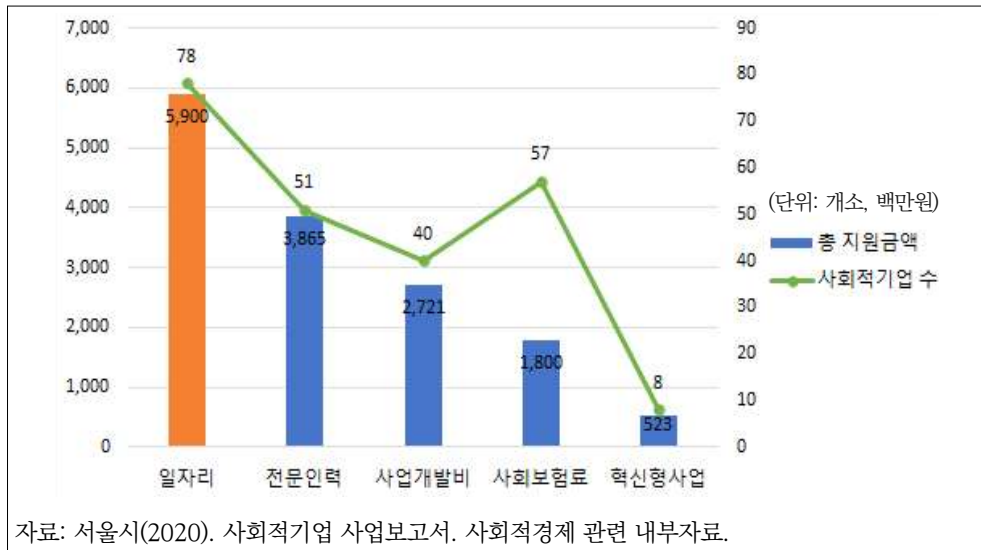
183,590원을 지원하며, 국비 75%, 시비 25%로 실행하였다.

〈표 3-2-7〉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사업 (2020년)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 (중복)	총 지원금액	비율	
정부 지원 사업	재정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78	5,900	39.8
		전문인력 지원	51	3,865	26.1
		사업개발비 지원	40	2,721	18.4
		사회보험료 지원	57	1,800	12.2
		소계	226	14,286	96.5
	기타 정부지원 (서울시)	혁신형 사업	8	523	3.5
합계		234	14,809	100.0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사회적경제 관련 내부자료.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사회적경제 관련 내부자료.

[그림 3-2-7]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사업 (2020년)

정부지원사업 중 기타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서울시 혁신형 사업은 2020년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에 총 523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100%로 지원했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기타 정부지원은 혁신형 사업 외에도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데,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사업⁵⁾,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

성사업⁶⁾,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⁷⁾ 등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광진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실증모델 적용 등 각 자치단체별 지역특화 사업 지원에 646백만원(국비 452백만원, 시비 194백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으로 지원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서울시, 2021).

다. 민간지원사업

2020년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사업은 30,456백만원으로 총 587개소를 지원했다. 이러한 민간지원사업은 기타 지원 501개소, 18,314백만원 > 일반기부 58개소, 10,064백만원 > 모기관지원 14개소, 1,094백만원 > 기업후원 13개소, 935백만원 > 민간금융 지원 1개소, 52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3-2-8>, [그림 3-2-8]).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기타 지원은 공연수익금, 지원금 수익, 퇴직연금운용수익, 재산재평가 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료 수입, 외환차익, 영업보상금, 기타 잡이익, 이자수익 등 영업 외의 수익이 해당된다. 둘째, 일반기부는 개인,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포함된다. 셋째, 모기관지원은 모법인이나 모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 차원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해당된다. 넷째, 기업후원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연계된 사회적기업에 기업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협업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마지막으로 민간금융지원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민간금융지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출자자 참여 및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2018년 모태펀드를 출자하여(800억원, 80%)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민간지원사업은 사회적

-
- 5)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사업: 사회적경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며,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 6)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지원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롤모델로 성장시킨다.
 - 7)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돌봄, 복지, 안전, 주거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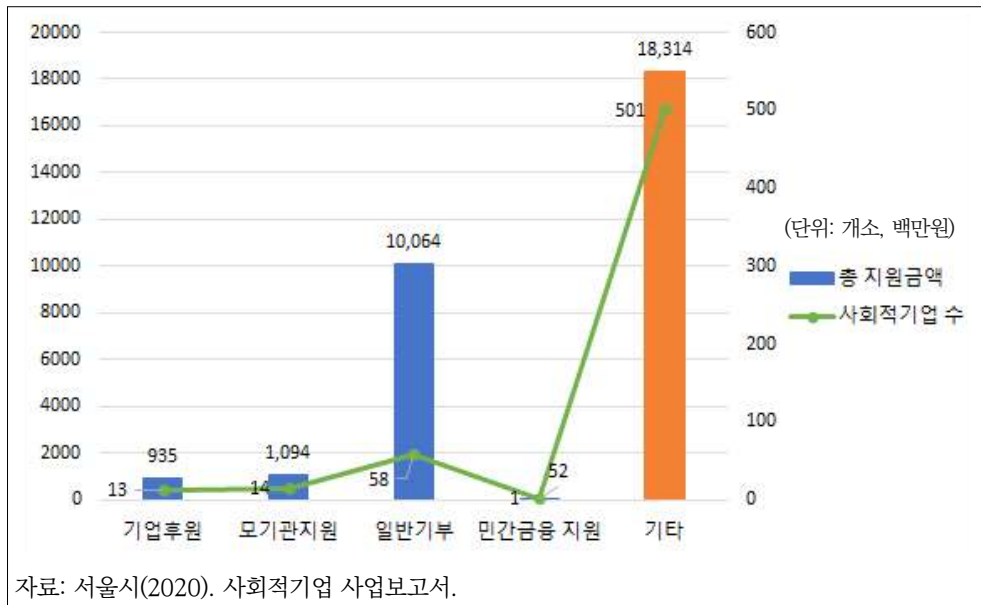
기업 발전과 촉진하여 규모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2-8〉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사업 (2020년)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사회적기업 (중복)	총 지원금액	비율
민간 지원 사업	기업후원	935	3.1
	모기관지원	1,094	3.6
	일반기부	10,064	33.0
	민간금융 지원	52	0.2
	기타 지원	501	60.1
	합계	587	30,456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8]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사업 (2020년)

4. 재정성과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재정성과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재정성과는 매출, 순이익, 재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김창범 · 이찬영, 2015; 김희철, 2015), 2020년 서울

시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를 분석한 결과, <표 3-2-9>와 같이 총 매출액은 2,085,421백만원으로, 평균 4,146백만원, 중앙값 55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평균 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기업 1개소를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총 매출액 1,103,955백만원, 평균 2,199백만원, 중앙값 556백만원으로 나타나 매출액과 평균은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중앙값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영업이익은 5,924백만원, 평균 12백만원, 중앙값 -14백만원으로 영업이익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 중 편차가 큰 사회적기업 1개소를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총 영업이익은 -7,235백만원, 평균 -14백만원, 중앙값 -14백만원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총 당기순이익은 26,363백만원, 평균 52백만원, 중앙값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편차가 큰 사회적기업 1개소를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총 당기순이익은 22,049백만원, 평균 43백만원, 중앙값 6백만원으로 나타나 소폭 낮아졌다.

<표 3-2-9>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총 금액	평균 금액	중앙값
전체	매출액	2,085,421	4,146	557
	영업이익	5,924	12	-14
	당기순이익	26,363	52	7
편차가 큰 1개소 제외	매출액	1,103,955	2,199	556
	영업이익	-7,235	-14	-14
	당기순이익	22,049	43	6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5. 고용성과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유급근로자는 13,461명(100.0%)으로 나타났다. 그 중 취약계층 근로자 7,980명(59.3%)이 비취약계층 근로자 5,481명(40.7%)보다 약 20% 높게 나타났는데(<표 3-2-10>, [그림 3-2-9]). 전체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수준으로, 서울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는 평균임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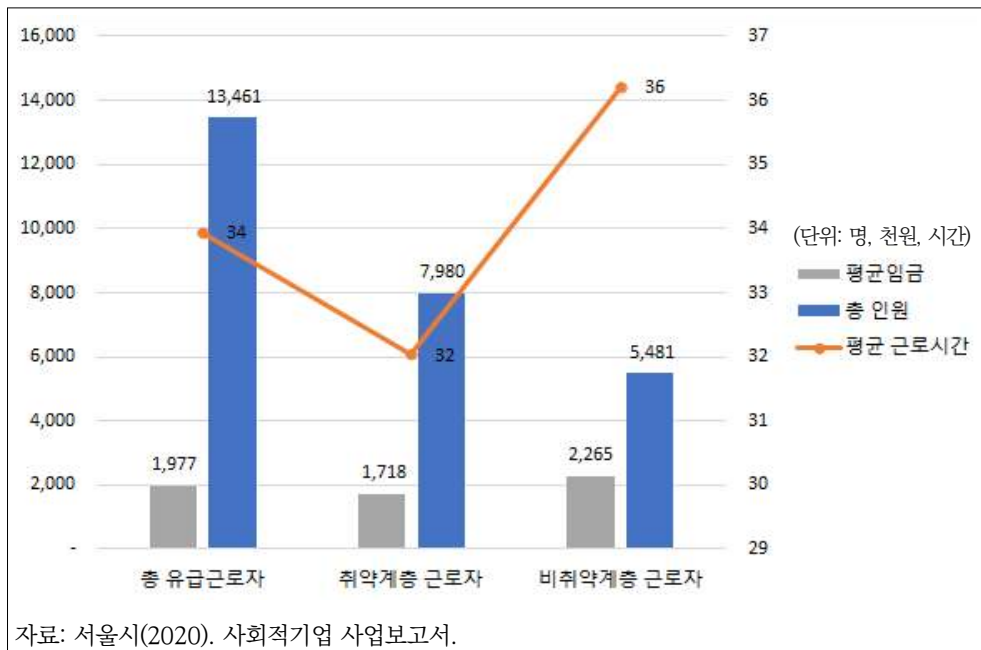
계층의 평균임금은 1,977천원으로 전체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 2,265천원 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비취약계층의 평균임금 1,718천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청소업 187.4만원(청소 및 환경미화 164.4만원) 등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이 사회적기업에서 더 높은 전국단위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한편,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총 유급근로자는 34시간인데, 취약계층 근로자가 32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36시간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미세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표 3-2-10〉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단위: 명(%), 천원, 시간)

구분	총 인원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전체 총 유급근로자	13,461(100.0)	1,977	34
취약계층 근로자	7,980 (59.3)	1,718	32
비취약계층 근로자	5,481 (40.7)	2,265	36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9]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6. 사회서비스 제공

가.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에서는 첫째, 보건복지는 돌봄, 의료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인돌봄시설을 위탁하는데 사회적 가치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돌봄 사회적기업의 돌봄 서비스 위탁 운영을 활성화 추진과 함께 지역특화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을 연계하였으며, 셋째, 보육은 국공립 시설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시켰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다섯째, 지역주민 중심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사업 분야를 사회적기업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곱째, 환경형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하여 생태관광과 녹색소비 등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귀산촌인, 청년임업인 등이 함께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지역에서도 각 유형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지역 인증사회적기업 총 507개소 중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해 응답한 사회적기업은 총 259개소(51.1%)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3-2-11〉, [그림 3-2-10]).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편차가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기타로 91개소(15.2%)가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 75개소(12.5%) > 문화예술 50개소(8.4%) > 사회복지 및 고용 34개소(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유형은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였는데, 보육 2개소(0.3%), 산림보전 및 문화재 4개소(0.7%) 등으로 나타나 1%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에서는 기타 1,783개소(56.7%) > 문화예술 309개소(9.8%) > 교육 276개소(8.8%) >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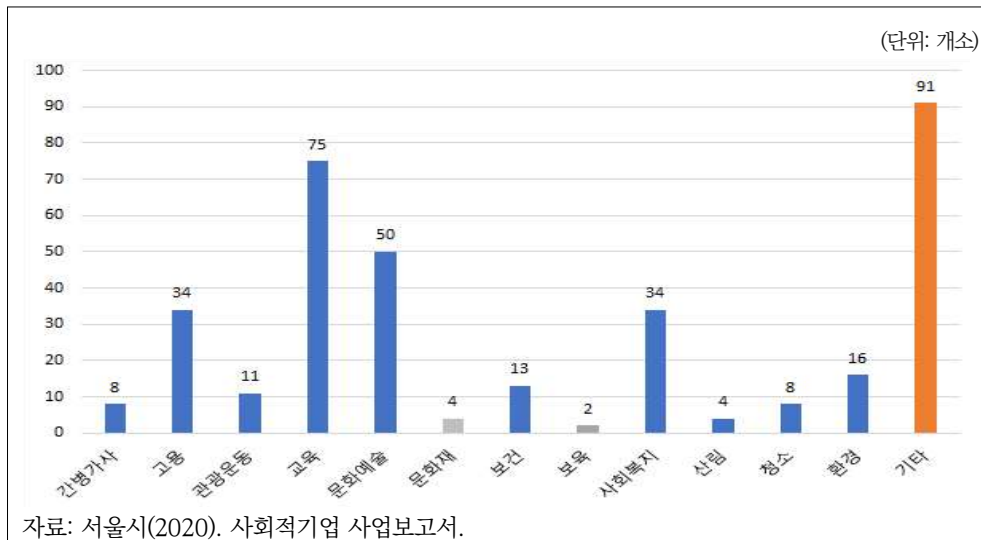
267개소(8.5%) > 사회복지129개소(4.1%) 등의 순서로 나타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서울지역과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3-2-11〉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적기업 수	비율
간병가사	8	1.3
고용	34	5.7
관광운동	11	1.8
교육	75	12.5
문화예술	50	8.4
문화재	4	0.7
보건	13	2.2
보육	2	0.3
사회복지	34	5.7
산림보전	4	0.7
청소	8	1.3
환경	16	2.7
기타	91	15.2
전체(복수응답)	350	141.1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10〕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나.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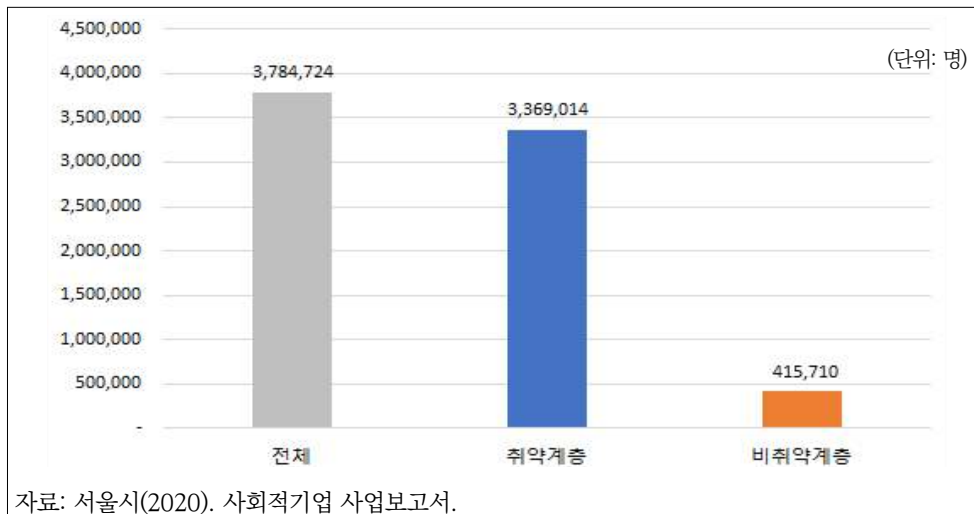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제공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3,784,724명(100.0%)으로 취약계층 3,369,014(89.0%)이 비취약계층 415,710(11.0%) 보다 약 9배가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표 3-2-12〉, [그림 3-2-11]). 사회서비스 실적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모두 해당되며, 여기서 취약계층은 취업 취약층은 물론, 조손가정, 외국인 근로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한국노동연구원(2020)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60개소로, 총 518,949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즉, 하나의 사회적기업 당 연 평균 8,649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2-12〉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단위: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비율
전체	3,784,724	100.0
취약계층	3,369,014	89.0
비취약계층	415,710	11.0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 서울시(2020).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그림 3-2-11]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제4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제1절 연구내용
- 제2절 연구방법
- 제3절 연구결과

4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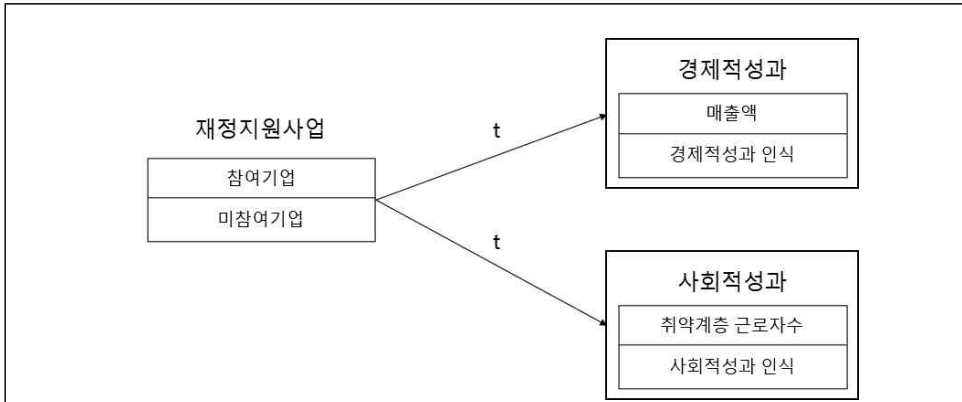
제1절. 연구내용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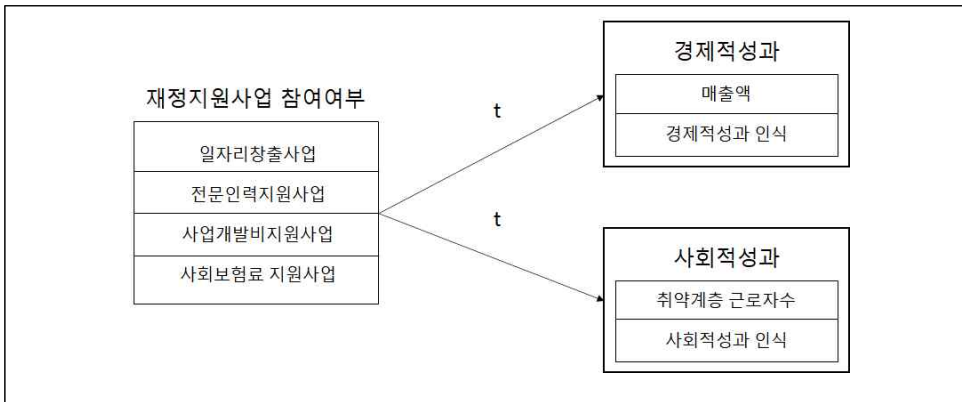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및 재정지원사업과 개인, 조직, 생태계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연구문제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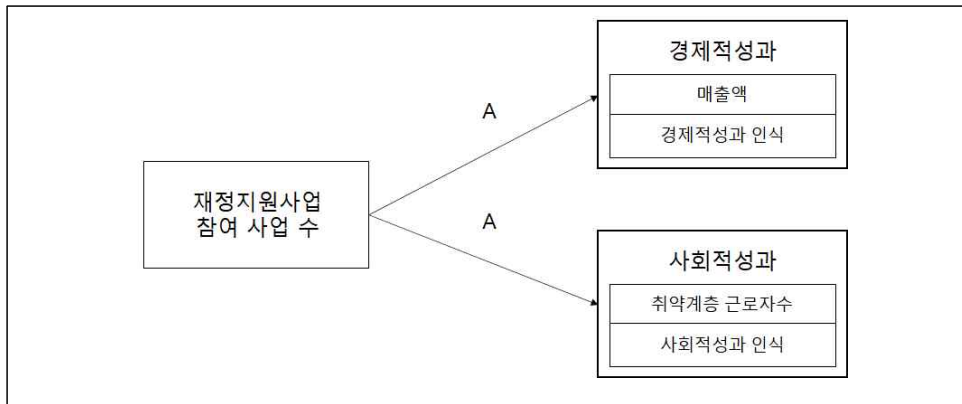
연구문제1: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차이가 있는가?	
1-1.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 간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재정지원사업 세부사업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재정지원사업이 개인, 조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재정지원사업이 개인(임파워먼트,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재정지원사업이 조직(업무성과, 거버넌스 역량, 경영지원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지역사회 역량강화, 사회적자본,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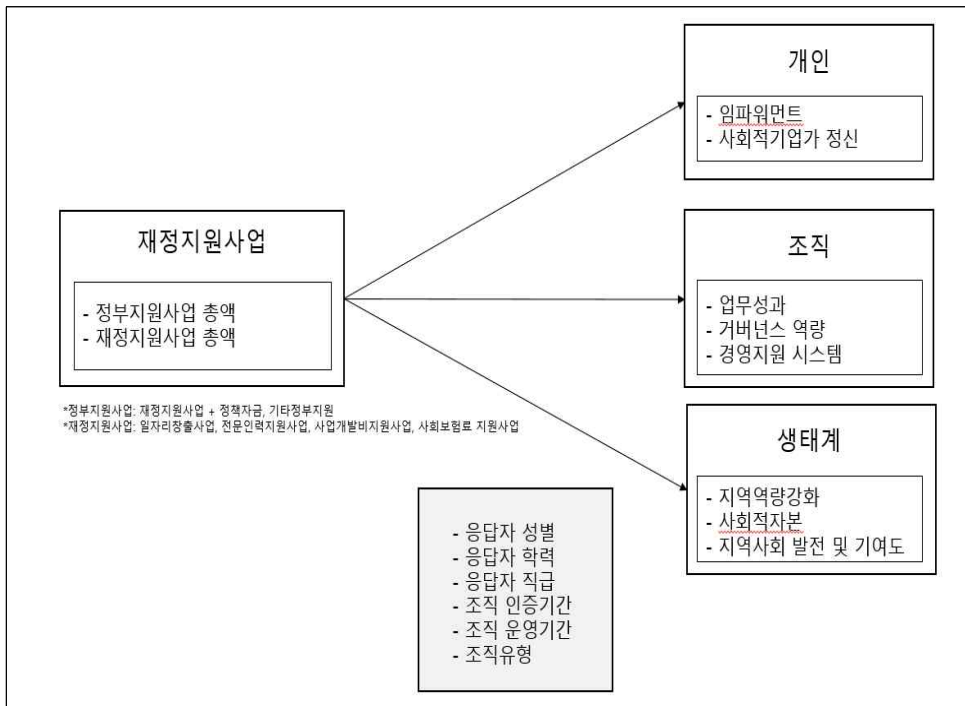
[그림 4-1-1] 연구문제 1-1 연구모형



[그림 4-1-2] 연구문제 1-2 연구모형



[그림 4-1-3] 연구문제 1-3 연구모형



[그림 4-1-4] 연구문제 2 연구모형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은 2020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서울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총 838개소(인증사회적기업 518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20개소)이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2020년 기준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명단을 제공받아 온라인 서베이 전수조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에 매출액, 순이익, 임금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각 기업의 운영책임자 또는 대표를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모든 연구의 과정은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한 연구자들이 담당하였으며, 생명윤리위원회(IRB⁸⁾)의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설문에 앞서 모든 설문대상자에게 연구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설문응답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참여 독려 및 설문 응답률을 높이고자, 설문배포 시 연구책임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감사인사를 담은 편지문을 첨부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기간에 모든 설문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관련 공문 발송 및 총 3차례 우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연구참여를 독려하였다. 서베이는 2021년 9월 27일~2021년 11월 15일까지 5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838부 중 177부(21.1%)가 회수되었고, 응답 기업 중 중복이 확인되어 분석에는 176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4-2-1).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 일원분산배치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재정지원사업이 개인, 조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베이에 앞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가능한 문항으로 설정하고자,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문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부서와 함께 본 연구팀이 함께 논의 후 측정도구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생태계의 특성, 사회적·경제적 특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8) IRB: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EWHA-202109-0008-01)

2021년 7월~8월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IRB - EWHA-202109-0008-01)
2021년 9월	• 온라인 서베이 설문 구축 의뢰
2021년 9월~10월	• 서울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명단 1차 확보 * 10월 중순까지 최종 명단 보완이 이루어짐.
2021년 9월 27일 ~ 2021년 10월 21일 ~ 2021년 11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서베이 개시(총 8회 실시, 약 5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차(9월 27일), 2회차(10월 1일), 3회차(10월 6일) → 연구팀 전화독려 * 최종 명단 보완과 병행하며 조사 수행 4회차(10월 14일), 5회차(10월 19일) → 연구팀 전화독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에 온라인 서베이 참여 독려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6회차(10월 25일), 7회차(11월 1일), 8회차(11월 9일) → 연구팀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독려 • 온라인 서베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8부 중 177부(21.1%) 회수

[그림 4-2-1] 자료수집 절차

가. 주요 변수 측정 : 독립변수

본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에 정부지원사업 총액, 재정지원사업 총액, 재정지원사업 참여 수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더해지는 재정지원(정부+민간)을 크게 민간지원과 정부지원으로 나누었을 때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부지원사업에는 재정지원사업⁹⁾과 정책자금, 기타 정부지원이 있어,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받는 모든 정부지원사업의 총액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재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명시된 4가지 재정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

9)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칭하여 이르는 용어(고용노동부, 2021)

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한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은 4가지 사업의 지원총액을 의미한다. 또한 위 4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지칭하고 정책자금 및 기타 정부지원까지 참여하는 기업을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지칭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 <표 4-2-1>과 같다.

<표 4-2-1> 주요 변수 설명: 독립변수

주요변수	측정내용	비고
정부지원사업 총액	재정지원사업 + 정책자금 및 기타 정부지원 총액	사업보고서 및 서베이 결과
재정지원사업 총액	재정지원사업 총액	사업보고서 및 서베이 결과
재정지원사업 참여 수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여부	참여한 사업 수 0개~3개이상

주)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나. 주요 변수 측정 : 종속변수

1)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선행된 조사들을 참고하여 각각 경제적 성과 인식, 사회적 성과 인식과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적 성과에서의 매출액은 사업보고서와 서베이 결과로 표기하였고, 경제적 성과 인식은 McGee, Dowling & Megginson (1995)의 문항을 조상미 외(2012)가 번역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영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 /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총 5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사회적 성과에서의 취약계층 고용수는 사업보고서와 서베이 결과로 표기하였고, 사회적 성과 인식은 Kanter & Summer(1987)의 문항을 조상미 외(2012)가 번역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약계층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 /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률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윤리적 기업과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성과 인식과 사회적 성과 인식의 각 문항은 ‘아니다(1,2점)’, ‘보통(3, 4, 5점)’, ‘우수(6, 7점)’로 7개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성과 인식의 신뢰도는 .925이며, 사회적 성과 인식의 신뢰도는 .837로 나타났다.

2) 개인 : 임파워먼트, 사회적기업가 정신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 개인은 임파워먼트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측정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조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 /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경험을 신뢰한다.’ 등의 32개의 문항으로 각각 신뢰감, 관계성, 유능감, 의미감을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측정하는 문항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업무기법이나 방법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등 1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목적을 측정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높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임파워먼트의 신뢰도는 .819이며,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신뢰도는 .941로 나타났다.

3) 조직 : 업무성과, 거버넌스 역량, 경영지원시스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성과, 거버넌스 역량, 경영지원시스템으로 측정하였다. 업무성과는 업무 내 성과, 업무 외 성과(이타심), 업무 외 성과(일반규칙준수)를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한다. / 업무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다.’ 등의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5개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전체 문항 중 6, 7, 15, 18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업무성과의 신뢰도는 .906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역량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조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은 '아니다(1,2점)', '보통(3, 4, 5점)', '우수(6, 7점)'로 7개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거버넌스 역량이 높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거버넌스 역량의 신뢰도는 .85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시스템은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 및 채용 기준과 직무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있다. /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아니다(1,2점)', '보통(3, 4, 5점)', '우수(6, 7점)'로 7개의 응답범주를 지닌다. 숫자가 클수록 경영지원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지원시스템의 신뢰도는 .928로 나타났다.

4) 생태계 :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회적자본,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생태계를 측정한 도구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회적자본,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이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Marshman, M.(2006)의 문항을 공동모금회(2018)에서 번역한 문항을 사용했다. '기업이 있는 지역의 의회(지자체 등)의 의사결정에 포함된다. / 지역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등의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5개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높은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역량강화의 신뢰도는 .91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은 '지방자치에서 정한 조례를 지킨다. / 범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등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사회적자본이 높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사회적자본의 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는 '우리 회사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자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등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되어있고, 숫자가 클수록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의 신뢰도는 .925로 나타났다.

〈표 4-2-2〉 주요 변수 설명: 종속변수

주요변수		변수설명		신뢰도	출처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매출액		사업보고서 및 서베이 결과		
		경제적 성과 인식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영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외 2문항	.925	M c G e e , Dowling & Megginson (1995), 조상미 외(2012)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고용수		사업보고서 및 서베이 결과		
		사회적 성과 인식	취약계층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 /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외 4개 문항	.837	Kanter & Summer(1987), 조상미 외(2012)	
	개인	인파워먼트	신뢰감	조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 외 6문항	.723	오주리(2011)
			관계성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외 7문항	.231	
			유능감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외 8문항	.797	
			의미감	하는 일의 가치에 가부심을 느낀다. 외 6문항	.726	
		전체			.819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성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외 4문항	.894	배귀희 (2011, 2014)
			진취성	반드시 해낸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외 3문항	.858	
	위험감수성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외 4문항	.870		
	사회적 목적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이 있다. 외 3문항	.868		
	전체			.941		
	조직	업무성과	업무 내 성과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한다. / 업무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다. 외 5문항	.816	Williams & Anderson(1991), 조상미 역(2005)
업무 외 성과 : 이타심			동료들을 잘 돕는다. / 업무량이 많은 동료들을 도와준다. 외 4문항	.891	Smith, Organ & Near(1983), 조상미 역(2005)	
업무 외 성과 : 일반규칙준수			직원은 시간을 잘 지킨다. / 직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리 알린다. / 불필요한 휴가 및 병가를 쓰지 않는다. 외 4문항	.764		
전체			.906			
거버넌스 역량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외 4문항	.859			
경영지원 시스템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 및 채용 기준과 직무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있다. 외 11 문항	.928				

생 태 계	지역사회 역량강화		기업이 있는 지역의 의회(지자체 등)의 의사 결정에 포함된다. 외 4문항	.913	
	사 회 적 자 본	사회적 규범	지방자치에서 정한 조례를 지킨다. 외 2문항	.728	한국지방행정 연구원(2012)
		신뢰	가족을 신뢰한다. 외 5문항	.832	안병일(2009)
		네트 워크	지역주민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외 6문항	.930	진관훈(2011)
	전체			.923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자립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2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4-2-3> 과 같다. West et al.(1996)에 따르면,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7미만인 경우 정규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1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경제적 성과 인식	4.36	1.39	1	7	-.41	-.80
사회적 성과 인식	5.04	0.97	2	7	-.53	.21
입파워먼트	4.06	0.51	3	5	-.1	-.02
사회적기업가정신	3.85	0.56	3	5	.04	-.13
업무성과	3.80	0.59	3	5	.29	-.20
거버넌스역량	5.27	1.03	2	7	-.41	-.07
경영지원 시스템	4.59	1.23	2	7	-.21	-.33
지역사회역량강화	2.89	0.97	1	5	.08	-.59
사회적자본	3.85	0.67	2	5	-.25	1.27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3.48	0.65	1	5	-.60	1.01

주) 사업 총액 및 매출액 단위: 천 원

제3절. 연구결과

1. 응답자 및 기업 일반사항

가. 응답자 일반사항 및 특성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은 남성이 52.8%, 여성이 47.2%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6세이며, 40대(35.2%), 30대(30.1%), 50대(20.5%), 60대(8.0%), 20대(4.0%), 70대 이상(0.6%) 순으로 나타났다(〈표 4-3-1〉). 혼인 상태는 미혼 31.8%, 기혼 65.3%으로 기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 여부는 있음이 66.5%, 없음이 33.5%로 부양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7.4%로 가장 높았고, 이후로 대학원 졸업이 30.1%, 고등학교 졸업이 10.2%, 대학교 재학이 1.7%, 기타가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급은 대표(사장/이사장)가 56.3%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부장, 차장, 팀장, 과장, 대리급)가 24.4%, 임원(상무, 전무, 경영이사)이 15.9%, 사원이 2.3%, 기타가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전문위원과 선임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4-3-1〉 응답자 개인 일반적 사항

(N = 176)			
변수명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93	52.8
	여성	83	47.2
연령	20대	7	4.0
	30대	53	30.1
	40대	62	35.2
	50대	36	20.5
	60대	14	8.0
	70대 이상	1	0.6
혼인상태	미혼	56	31.8
	기혼	115	65.3
	기타	5	2.8
부양자 여부	있음	117	66.5
	없음	59	33.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8	10.2
	대학교 재학	3	1.7
	대학교 졸업	101	57.4
	대학원 졸업	53	30.1
	기타	1	0.6
직급	대표(사장/이사장)	99	56.3
	임원(상무, 전무, 경영이사)	28	15.9
	중간관리자 (부장, 차장, 팀장, 과장, 대리급)	43	24.4
	사원	4	2.3
	기타	2	1.1

나. 응답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사항 및 특성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일반적인 사항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조직의 기업유형은 인증사회적기업이 63.1%로 가장 높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7.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4.8%, 부처와 지역이 혼합된 예비사회적기업형이 4.5% 순으로 나타났다(〈표 4-3-2〉). 조직형태로는 상법상 회사(주식/유한/합자)가 56.8%, 민법상 조합(협동/영농) 17.0%, 민법상 법인(사단/재단)이 12.5%, 비영리 단체가 9.1%,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기타가 각각 2.3%로 상법상 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목적 유형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이 39.8%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제공형이 39.2%였으며, 혼합형이 8.0%, 지역사회공헌형이 6.8%, 사회서비스제공형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직의 사업소재지는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이 31.3%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이 19.9%,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 19.3%,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17.0%,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조직들의 수익사업 업종은 기타서비스 29.0%를 제외하고 일반제조가 15.3%, 전문교육과 공연예술이 각각 9.1%, 음식료 제조와 지역개발·컨설팅이 각각 5.7%, 사회복지가 5.1%, 집수리가 4.0%, 재활용이 3.4%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출판·인쇄·복사용지(2.8%), 보건(2.8%), 청소(2.3%), 택배(1.1%), 관광(1.1%), 보육(1.1%), PC·소모품(0.6%), 가사간병지원(0.6%), 장애인교육(0.6%), 방과후교육(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응답 기업 일반사항

(N = 176)

변수명	구분	사회적기업 수	비율(%)
기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지역형)	8	4.5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26	14.8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1	17.6
	인증사회적기업	111	63.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사단/재단)	22	12.5
	민법상 조합(협동/영농)	30	17.0
	비영리 단체	16	9.1
	사회복지 법인	4	2.3
	상법상 회사(주식/유한/합자)	100	56.8
	기타	4	2.3
사업소재지	도심권	22	12.5
	동북권	34	19.3
	서북권	35	19.9
	서남권	55	31.3
	동남권	30	17.0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69	39.2
	사회서비스제공형	11	6.3
	혼합형	14	8.0
	지역사회공헌형	12	6.8
	기타(창의·혁신)형	70	39.8
수익사업 업종	방과 후 교육	1	0.6
	전문교육	16	9.1
	장애인 교육	1	0.9
	보건	5	2.8
	사회복지	9	5.1
	재활용	6	3.44
	청소	4	2.3
	집수리	7	4.0
	보육	2	1.1
	공연예술	16	9.1
	관광	2	1.1
	가사간병지원	1	0.6
	음·식료 제조	10	5.7
	택배	2	1.1
	일반 제조	27	15.3
	PC·소모품	1	0.6
	지역개발·컨설팅	10	5.7
	출판·인쇄·복사용지	5	2.8
	기타서비스	51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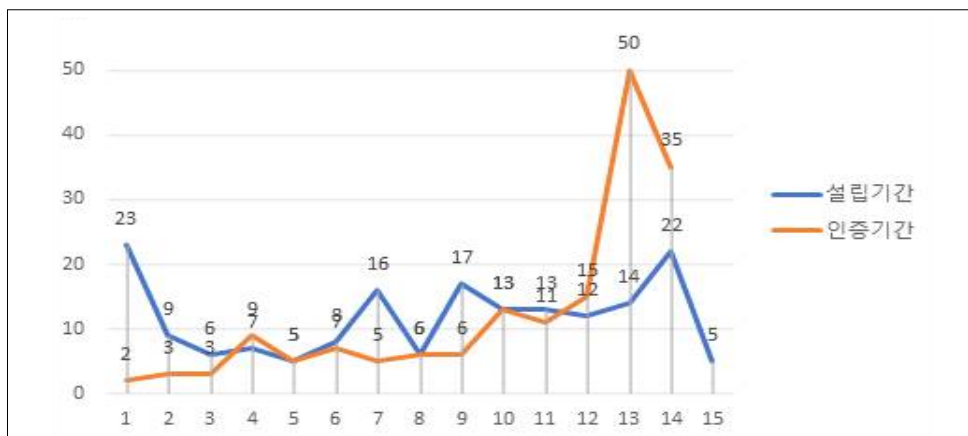
다. 응답 사회적기업의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응답 사회적기업의 설립기간과 인증기간은 1년부터 시작하여 15년까지 분포 범위가 다양하다. 응답 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은 12.5%의 기업의 설립기간이 14년이였다. 또한 응답 사회적기업의 인증기간은 가장 많은 28.4%의 기업이 13년의 인증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긴 14년의 인증기간을 가진 기업들은 19.9%의 기업들이 있었다.

〈표 4-3-3〉 응답 기업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N = 176)

기간 (단위 = 년)	설립기간		인증기간	
	사회적기업 수	비율(%)	사회적기업 수	비율(%)
1	23	13.1	2	1.1
2	9	5.1	3	1.7
3	6	3.4	3	1.7
4	7	4.0	9	5.1
5	5	2.8	5	2.8
6	8	4.5	7	4.0
7	16	9.1	5	2.8
8	6	3.4	6	3.4
9	17	9.7	6	3.4
10	13	7.4	13	7.4
11	13	7.4	11	6.3
12	12	6.8	15	8.5
13	14	8.0	50	28.4
14	22	12.5	35	19.9
15	5	2.8		



〔그림 4-3-1〕 응답 사회적기업 설립기간 및 인증기간

2.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가.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2020년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3-4〉). 그 결과 사회적 성과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74) = 2.195, p < .05$). 즉,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M = 5.22, SD = 0.89$)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4.90, SD = 1.01$)보다 사회적 성과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 인식, 매출액 및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 4-3-4〉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M	SD	t	p
경제적 성과 (인식)	참여	80	4.57	1.42	1.828	.069
	미참여	96	4.19	1.35		
경제적 성과 (매출액)	참여	80	8.64	0.63	1.869	.063
	미참여	96	8.44	0.75		
사회적 성과 (인식)	참여	80	5.22	0.89	2.195*	.029
	미참여	96	4.90	1.01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참여	80	7.88	17.63	-0.638	.524
	미참여	96	12.59	64.10		

주) 매출액은 log값,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단위는 명.

* $p < .05$.

나. 재정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

먼저, 재정지원사업의 4가지 세부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3-5〉). 그 결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3-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M	SD	t	p
경제적 성과 (인식)	참여	37	4.45	1.40	0.455	.650
	미참여	139	4.34	1.39		
경제적 성과 (매출액)	참여	37	8.56	0.46	0.279	.781
	미참여	139	8.52	0.75		
사회적 성과 (인식)	참여	37	5.25	0.74	1.774	.080
	미참여	139	4.99	1.01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참여	37	7.97	21.08	-0.347	.729
	미참여	139	11.11	53.81		

주) 매출액은 log값,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단위는 명.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및 미참여 기업 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4-3-6〉), 경제적 성과 인식과 사회적 성과 인식이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성과 인식의 경우 참여 기업이(M = 4.91, SD = 1.38)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4.22, SD = 1.3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 2.705, p < .01). 사회적 성과 인식 역시 참여한 기업이(M = 5.41, SD = 0.86)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4.95, SD = 0.9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 2.590, p < .05). 그러나 매출액과 취약계층 근로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M	SD	t	p
경제적 성과 (인식)	참여	36	4.91	1.38	2.705**	.008
	미참여	140	4.22	1.36		
경제적 성과 (매출액)	참여	36	8.49	0.67	-0.441	.839
	미참여	140	8.54	0.71		
사회적 성과 (인식)	참여	36	5.41	0.86	2.590*	.010
	미참여	140	4.95	0.97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참여	36	7.14	14.48	-0.456	.649
	미참여	140	11.30	54.18		

주) 매출액은 log값,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단위는 명.

*p < .05. **p < .01.

3)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

재정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및 미참여 기업 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4-3-7〉).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 인식($t(174) = 2.396, p < .05$)과 매출액($t(174) = 2.37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 인식의 경우, 참여 기업이($M = 4.89, SD = 1.30$)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4.24, SD = 1.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참여 기업이($M = 8.79, SD = 0.69$)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8.47, SD = 0.6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성과 인식 및 취약계층 근로자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7〉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M	SD	t	p
경제적 성과 (인식)	참여	32	4.89	1.30	2.396*	.018
	미참여	144	4.24	1.39		
경제적 성과 (매출액)	참여	32	8.79	0.69	2.379*	.018
	미참여	144	8.47	0.69		
사회적 성과 (인식)	참여	32	4.98	0.93	-0.394	.694
	미참여	144	5.06	0.98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참여	32	12.09	25.80	0.210	.834
	미참여	144	10.08	52.56		

주) 매출액은 log값,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단위는 명.

* $p < .05$.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4-3-8〉),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74) = 2.874, p < .01$). 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M = 8.88, SD = 0.58$) 참여하지 않은 기업($M = 8.47, SD = 0.70$)보다 매출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 인식, 사회적

성과 인식 및 취약계층 근로자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8〉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M	SD	t	p
경제적 성과 (인식)	참여	27	4.66	1.40	1.210	.228
	미참여	149	4.31	1.39		
경제적 성과 (매출액)	참여	27	8.88	0.58	2.874	.005**
	미참여	149	8.47	0.70		
사회적 성과 (인식)	참여	27	5.05	0.95	0.027	.979
	미참여	149	5.04	0.97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참여	27	12.59	25.16	0.248	.805
	미참여	149	10.06	51.94		

주) 매출액은 log값,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단위는 명.

** p < .01.

다.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표 4-3-9〉), 경제적 성과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2.681, p < .05).

자세히 살펴보면, 총 4개의 재정지원사업 중 3개 이상 중복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경제적 성과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 5.05, SD = 1.36), 2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M = 4.84, SD = 1.23), 1개만 참여한 기업(M = 4.26, SD = 1.49), 미참여 기업(M = 4.19, SD = 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4-3-9〉 재정지원사업 참여 수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비교

(N = 17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경제적 성과 (인식)	미참여	96	4.19	1.35	2.681*	.048
	1개 참여	42	4.26	1.49		
	2개 참여	25	4.84	1.23		
	3개 이상 참여	13	5.05	1.36		
경제적 성과 (매출액)	미참여	96	8.44	0.75	1.332	.286
	1개 참여	42	8.60	0.61		

	2개 참여	25	8.69	0.74		
	3개 이상 참여	13	8.68	0.48		
사회적 성과 (인식)	미참여	96	4.90	1.01	1.985	.118
	1개 참여	42	5.23	0.95		
	2개 참여	25	5.31	0.74		
	3개 이상 참여	13	4.97	0.96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수)	미참여	96	12.59	64.10	0.300	.825
	1개 참여	42	4.93	8.18		
	2개 참여	25	8.72	15.85		
	3개 이상 참여	13	15.77	34.88		

* $p < .05$.

3.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개인, 조직, 생태계

다음으로, 개인과 조직과 생태계에 대해 재정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의 총액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재정지원사업의 영향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총액, 정부지원사업 총액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개인(임파워먼트,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업무성과, 거버넌스 역량, 경영지원시스템), 생태계(지역사회 역량강화, 사회적자본,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인증기간, 운영기간, 조직형태, 응답자 개인의 성별, 학력, 직급은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재정지원사업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원사업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먼저, 재정지원사업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0>과 같이 나타났다. 본 분석에 앞서, Durbin-Watson 값은 2.040으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I의 설명력은 10.2%이었으나, 독립변수인 재정지원사업 총

액, 정부지원사업 총액을 추가한 모형 II는 모형 I에 비해 모형의 보다 높은 26.2%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된 모형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beta = .460, p < .001$)이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사업 총액이 응답자 개인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0〉 재정지원사업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임파워먼트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079	-.519	-.173	-1.177
	운영기간	.055	.350	.177	1.200
	조직형태	.040	.291	.069	.550
	응답자 성별	.240	1.739	.201	1.563
	응답자 학력	.095	.704	.146	1.153
	응답자 직급	-.360	-2.407*	-.207	-1.363
재정지원사업 총액				.019	.118
정부지원사업 총액				.460	3.471***
R^2		.200		.382	
ΔR^2		.200		.183	
Durbin-Watson 값		2.040			

* $p < .05$, *** $p < .001$

2)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1〉과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503으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I은 22.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형 II은 그보다 높은 32.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된 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정부지원사업 총액($\beta = .388,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사업 총액이 응답자 개인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1〉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사회적기업가 정신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261	1.843	.177	1.251
	운영기간	-.075	-.513	.030	.215
	조직형태	-.040	-.312	-.015	-.125
	응답자 성별	.188	1.467	.158	1.283
	응답자 학력	.084	.673	.119	.980
	응답자 직급	-.528	-3.796***	-.402	-2.759**
재정지원사업 총액				.028	.181
정부지원사업 총액				.388	3.051**
R^2		.307		.432	
ΔR^2		.307		.126	
Durbin-Watson 값		2.503			

** $p < .01$, *** $p < .001$

나. 재정지원사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원사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조직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2〉와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824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I은 6.7%의 설명력을 보였고, 모형 II는 8.2%의 설명력으로 보다 증가한 설명력을 보였으나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각 모형마다 투입한 모든 변인들도 업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2〉 재정지원사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업무성과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033	.199	-.004	-.025
	운영기간	.035	.207	.103	.574
	조직형태	-.007	-.049	.014	.091
	응답자 성별	.177	1.175	.150	.962
	응답자 학력	.013	.092	.023	.152
	응답자 직급	.104	.640	.199	1.081
재정지원사업 총액				-.035	-.178
정부지원사업 총액				.245	1.525
R^2		.050		.095	
ΔR^2		.050		.046	
Durbin-Watson 값		1.824			

2) 재정지원사업이 거버넌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

거버넌스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3〉과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503으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I에는 통제변수를, 모형 II에는 독립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모형 I은 2.9%의 설명력을 보였고, 모형 II은 보다 증가한 9.5%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 II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총액($\beta = .407$, $p < .05$)은 거버넌스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조직의 거버넌스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3〉 재정지원사업이 거버넌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거버넌스 역량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029	.178	-.051	-.315
	운영기간	-.043	-.254	.060	.369

	조직형태	-.218	-1.493	-.194	-1.405
	응답자 성별	-.026	-.179	-.063	-.443
	응답자 학력	-.018	-.124	.046	.328
	응답자 직급	-.274	-1.712	-.138	-.820
재정지원사업 총액				.009	.049
정부지원사업 총액				.407	2.772*
R^2		.084		.243	
ΔR^2		.084		.159	
Durbin-Watson 값		1.860			

* $p < .05$

3) 재정지원사업이 경영지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경영지원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4>와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283으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I은 3.4%의 설명력을 보였고, 모형 II는 0.6%의 설명력을 보여 모형 I보다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각 모형마다 투입한 모든 변인들도 경영지원시스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4> 재정지원사업이 경영지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063	.400	.021	.125
	운영기간	-.211	-1.293	-.157	-.916
	조직형태	-.068	-.483	-.054	-.374
	응답자 성별	.293	2.051	.286	1.913
	응답자 학력	.036	.257	.016	.112
	응답자 직급	-.340	-2.195	-.288	-1.634
재정지원사업 총액				.027	.141
정부지원사업 총액				.165	1.073
R^2		.139		.169	
ΔR^2		.139		.029	
Durbin-Watson 값		2.283			

다.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5>와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915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I은 7.1%의 설명력을 보였고, 모형 II는 8.3%의 설명력을 보여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각 모형마다 투입한 모든 변인들도 업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5>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N = 176)

독립변수		지역사회 역량강화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078	.471	.027	.148
	운영기간	.021	.121	.084	.470
	조직형태	.001	.004	.015	.097
	응답자 성별	.189	1.253	.171	1.094
	응답자 학력	.056	.385	.083	.540
	응답자 직급	-.102	-.626	-.027	-.145
재정지원사업 총액				.020	.101
정부지원사업 총액				.236	1.471
R^2		.045		.094	
ΔR^2		.045		.049	
Durbin-Watson 값		1.915			

2)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의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6>과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065로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I은 설명력이 16.8%였는데 반해, 모형 II에서는 34.6%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자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II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beta = .441, p < .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사업 총액이 응답 기업의 사회적자본이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6〉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N= 176)

독립변수		사회적자본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계 변수	인증기간	.078	.536	.000	.003
	운영기간	.051	.338	.160	1.152
	조직형태	-.089	-.677	-.062	-.525
	응답자 성별	.486	3.663	.441	3.636*
	응답자 학력	.085	.656	.160	1.342
	응답자 직급	-.259	-1.802	-.104	-.728
재정지원사업 총액				-.020	-.131
정부지원사업 총액				.441	3.538*
R^2		.259		.453	
ΔR^2		.259		.194	
Durbin-Watson 값		2.065			

* $p < .05$

3)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원사업이 생태계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17〉과 같이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546로 2와 가까워 오차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모형별 설명력은 모형 I이 7.6%, 모형 II가 7.3%로 나타났다. 모형 I에서는 지역 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으나 모형 II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beta = .425, p < .05$)이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사업 총액이 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7〉 재정지원사업이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N= 176)

독립변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			
		모형 I		모형 II	
		β	t	β	t
통제 변수	인증기간	.102	.611	.056	.339
	운영기간	-.041	-.240	.058	.353
	조직형태	-.103	-.691	-.070	-.503
	응답자 성별	.182	1.203	.122	.843
	응답자 학력	-.024	-.163	.050	.352
	응답자 직급	-.058	-.353	.118	.690
재정지원사업 총액				-.115	-.632
정부지원사업 총액				.425	2.859*
R^2		.041		.225	
ΔR^2		.041		.183	
Durbin-Watson 값		1.546			

* $p < .05$



제5장

서울시 사회적기업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결과

5

서울시 사회적기업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제1절. 연구내용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기초분석, 서베이 결과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회적기업, 지정종료된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성숙)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혁신형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총 6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5-1-1〉 FGI 연구문제

연번	FGI 연구문제
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3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제2절. 연구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하 FGI)는 집단을 활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한 방법으로서 조사자에 의해 선발되고 조합된 집단이 연구 과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연구방법이다(김영중, 2007). FGI는 집단 안에서 서로의 대화를 자극하며, 참여자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지지 혹은 반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개별 면담보다 집단의 심화된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김영천, 2006). FGI는 연구 참여자가 편의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연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organ & Krueger, 1993).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의 역동과 상호작용을 활용한 FGI를 수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재정 및 여러 지원에 대한 다면적인 경험과 전반적인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인증유형, 자치구, 조직형태 등의 구분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30개의 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18개의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¹⁰⁾.

첫째, 사회적기업의 이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지정중단한 사회적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둘째, 성장단계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탐구하였다. 셋째, 서울시 시

10)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ewha-202109-0008-01) 인터뷰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에 관한 서면 설명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진행되었다.

비 100%로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참여자의 지원경험과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또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종 구성된 연구참여자는 다음 <표 5-2-1>과 같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1그룹에는 총 3인,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정중단된 2그룹에 총 3인의 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3단계의 성장단계에 따라 3, 4, 5그룹은 각각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의 사회적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로 구성하여, 3~4인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참가자로는 성숙 단계에 준하는 기업 대표와 공동대표 등 2인이 참여하였다.

<표 5-2-1> FGI 참여자

(N = 18)

구분		성별	나이	직급	근무기간	
예비→인증	그룹1 (전환)	A	여	41세	이사	4년
		B	여	39세	이사장	6년
		C	여	29세	대표	6년
	그룹2 (중단)	D	여	47세	대표	8년
		E	남	39세	대표	9년
		F	남	68세	대표	10년
성장단계별	그룹3 (창업)	G	남	49세	대표	3년
		H	여	40세	대표	2년
		I	여	56세	임원	2년
	그룹4 (성장)	J	여	45세	대표	6년
		K	여	44세	임원	5년
		L	여	36세	대표	5년
	그룹5 (성숙)	M	남	47세	대표	19년
		N	남	53세	대표	13년
		O	여	51세	대표	12년
P		여	47세	임원	14년	
혁신형 사업 참여	그룹6 (혁신형)	Q	여	45세	대표	10년
		R	여	43세	공동대표	10년

〈표 5-2-2〉 FGI 참여기업 조직현황

(N = 18)

연번	설립년도	인증년도	형태	유형
1	2017	2020년 4차	상법상 회사	기타(창의·혁신)형
2	2014	2020년 6차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제공형
3	2016	2019년 6차	협동조합	기타(창의·혁신)형
4	2014	-	-	-
5	2012	-	-	-
6	2011	-	-	-
7	2019	예비-2019	상법상 회사	기타(창의·혁신)형
8	2020	예비-2020	예비-부처형	기타(창의·혁신)형
9	2019	2019년 4차	민법상 조합	사회서비스제공형
10	2015	2017년 4차	상법상 회사	사회서비스제공형
11	2015	2016년 3차	상법상 회사	일자리제공형
12	2016	2019년 3차	상법상 회사	혼합형
13	2002	2007년 1차	상법상 회사	기타(창의·혁신)형
14	2008	2009년 4차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제공형
15	2007	2007년 2차	상법상 회사	혼합형
16	2009	2012년 5차	비영리민간단체	일자리제공형
17	2011	2013년 5차	상법상 회사	기타(창의·혁신)형
18	2007	2010년 1차	비영리단체	기타(창의·혁신)형

3. 자료수집 및 분석

2021년도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대면 및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FGI는 연구책임자가 주 진행자로, 공동연구원 2인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여 18명의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집단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인터뷰 일정은 아래 〈표 5-2-3〉과 같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사용된 질문은 〈표 5-2-4〉와 같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참여자 전원에게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고,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팀이 녹취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내용의 적절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기법의 교차확인 절차를 거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즉 전사된 자료

를 3명의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는데,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살펴,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으로 상호 검토하여 의미 내용과 범주화 과정을 확인하였다(Morgan, 1997). 추출된 개념들을 재검토 하여 의미 단위로 자료를 나누는 코딩 작업을 하고, 다시 진술들을 뽑아 하위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주제를 추출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내용과 과정, 보완점 등을 정리하였다.

〈표 5-2-3〉 FGI 연구 일정 (2021년)

구분	전환	지정중단		창업		성장		성숙	혁신형
일정	11.17	11.15	11.16	11.12	11.14	11.08	11.09	11.18	12.01
시간	120분	90분	60분	100분	100분	90분	40분	120분	120분
방식	비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참여자	A,B,C	D,E	F	G,H	I	J,K	L	M,N, O,P	Q,R

〈표 5-2-4〉 FGI 질문 내용

구분	내용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사회적기업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떤 요인들이(전환, 중단, 창업, 성장, 성숙)에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 조직적, 네트워크, 재정지원 측면 2. 사회적기업을 (전환, 중단, 창업, 성장, 성숙)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 개인의 변화, 조직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3.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셨습니다습니까? 4. 사회적기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재정지원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기업의 서울시 재정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은 현장에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지원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3. 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서울 혁신형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은 어떠하셨습니다습니까?

제3절. 연구결과

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한가? : 위기가 오면 모색하고 자구책을 찾아 나아감.

〈표 5-3-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위기가 오면 모색하고 자구책을 찾아 나아감	코로나로 타격을 입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매출 감소 • 비즈니스 특성상 영향이 많음 • 잠정적으로 휴업 상태로 운영
	급격한 매출 상승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방역 업종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음 • 매출만 상승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보여주고 있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지하고 버티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고 직원들과 위기를 극복해나감 • 현상을 유지하고 또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함 • 조직을 슬림하게 정비하여 유지함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비즈니스 모색 • 사업운영 방향에 영향을 끼침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함 • 비즈니스 모델을 피벗하고 전향함

1) 코로나로 타격을 입음

사회적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타격을 입음’을 보여 주었다. 여러 기업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비즈니스 특성상 영향이 많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결국 ‘잠정적으로 휴업 상태로 운영’하는 곳도 다수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힘들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이 마이너스 95퍼센트까지 떨어졌어요.” (L)

“2021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잠정적으로 약간 휴업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R)

2) 급격한 매출 상승 경험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기업도 있었다. ‘청소, 방역 업

중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은' 사회적기업도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방역 소독을 주력한 회사는 그간 지속한 바이러스 연구가 기반이 되어 '매출만 상승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저희는 아무래도 방역 소독을 주력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자리를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폭주하고... 설립하고 나서부터 계속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안서가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매출만 올라갔다고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K)

3)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지하고 버티나감

여러 사회적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고 직원들과 위기를 극복해나가며', '현상을 유지하고 또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이참에 '조직을 슬림하게 정비하여 유지하는' 변화를 통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지하고 버티나가고' 있었다.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고 기존 직원들과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을 위주로, 운영체제 안에서 비용을 감소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J)

4)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함

코로나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급격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비즈니스를 모색'하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피벗하고 전향'하게 하였으며, 전반적인 '사업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좀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비즈니스 모델을 코로나에 맞게 바로 피벗을 해서 ...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잘 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L)

2.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표 5-3-2〉 인증사회적기업 이행과정 분석 결과

구분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인증 전환 그룹	재정지원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변화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지고 생태계 구축의 의지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음 • 자기 검열이 더욱 엄격해짐 • 조직에 탄탄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성장함
		영향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는 건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함 • 직원들의 자부심으로 조직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이 고객의 거래 유지와 외주에 필요함
		재정 지원	재정지원 사업으로 그다지 큰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경력은 국가에서 원하는 증명 안 돼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함 • 까다로운 기준의 전문인력 지원비 • 나눠주기 식의 사업개발비 • 지원을 위한 행정이 너무 과다함
지정 중단 그룹	서류행정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음	변화	지정종료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생태계 공간에 있을 수 없었음 • 공모사업 등에 요건이 맞지 않음 • 결이 비슷한 사회적기업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소셜 벤처 쪽에 훨씬 많음을 발견하고 마인드가 더 중요함을 깨달음
		영향	인증을 위한 준비 과정의 피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된 수준의 행정업무 능력의 부족 • 재미와 동기부여가 안 됨 •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현재 기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재정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당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이 잘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 개발비로 워크북을 제작하여 사업에 도움이 됨 • 인건비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음

1) 재정지원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 예비-인증 전환 그룹

(1)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지고 생태계 구축의 의지가 생김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그룹은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지고 솔선수범하며 의지가 생김'으로 인증 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우선 '사회적기업가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며, 더욱 더 '자기 검열이 엄격'해진다고 개인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또한 인증 후 '조직에 탄탄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고 조직의 변화를 꼽기도 하였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는 아, 정말 내가 사회적기업가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A)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 느낀 점은 우리 생태계를 좀 더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A)

(2)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증을 받는 건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자부심으로 조직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이 고객의 거래 유지와 외주에 필요'함을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인증을 받는 게 저희 비즈니스 상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게, 이제 저희의 고객, 저희에게 외주를 주는 기관들이 한 30%가 공공기관이에요.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고 저희하고 계속 고객으로서 거래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C)

"인증사회적기업을 운영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저희 회사는 굉장히 높아요." (C)

(3) 재정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음

예비-인증 전환 그룹은 특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인증 후 '재정 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프리랜서 경력은 국가에서 원하는 증명이 안 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기준의 전문인력 지원비'도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지원을 위한 행정이 너무 과다'하며, '나눠주기 식의 사업개발비' 등에 관해 재정지원사업의 보완이 요청되었다.

“전문인력 채용을 다 했는데 프리랜서 경력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경력 증명을 못 만들고, 국가에서 원하는 경력 증명이 안 돼 가지고 전문 인력 인건비를 못 받아서...” (C)

“사업 개발비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받아봤어요. 아, 근데 내년에는 안 낼 거예요. 차라리 돈 버는 게 빨라요, 이 행정 챙기느니. 그래서 너무 번거롭고요.” (C)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쓸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쓰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1~2천 밖에 주지 않을 거 그냥 1~2천짜리 사업비를 쓰라고 해야지,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썼다가 2천만 원짜리 혹은 천만 원짜리로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아예 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R&D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B)

2) 서류 행정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음 : 예비-지정종료 그룹

(1) 지정종료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음

예비에서 지정종료한 그룹은 우선 '지정종료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 지정종료 후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적경제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생태계 공간에 있을 수 없음'이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결이 비슷한 사회적기업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소셜 벤처 쪽에 훨씬 많음을 발견하고 중요한 건 마인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라고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요건이 맞지 않는 기업이 된 거예요.” (D)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나 결이 비슷한 사회적기업 단체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셜 벤처 쪽에 저희랑 결이 비슷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 좀 그냥 내가 마인드만 이대로 붙들고

가면 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E)

(2)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의 피로도

사회적기업 지정종료에 작용한 요인으로는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의 피로도’로서, ‘요구된 수준의 행정업무 능력의 부족’이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재미와 동기부여의 부재’도 지정종료에 또 다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현재 기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피력하였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 준비하는 설명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E)

“행정을 위한 시간으로 소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본업에 그냥 충실히 하고 싶은 거죠.” (D)

(3) 예비사회적기업 당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

예비-지정종료 그룹은 의외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업개발비로 워크북을 제작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인건비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음’을 설명하며, 재정지원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 당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일자리 지원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인력이 잘 들어오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D)

“사업화 개발비로 저희 워크북을 제작했어요. 15년도에 했는데 그 워크북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았죠.” (D)

“처음에 나올 적에 나와서 이거 꾸리려니까 이제 아주 어려웠죠. 근데 세 사람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을 썼어요.” (F)

3.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표 5-3-3〉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창업 그룹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	필 요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인적자원 인건비 지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활동을 이어나 갈 수 있는 기초자산의 역할
		보 완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분화시켜 맞춤형 지원으로 정확한 지원 정보를 알 수 있게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작업 계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비수기 재정지원사업 제정 필요 컨설팅에 자부담 완화
성장 그룹	재정지원사업 을 통해 성장 경험	필 요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사업 기획 전문가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수립에 밑받침이 된 사업개발비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이 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용도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얻음.
		보 완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 업을 고민하는 체계와 지원이 함께 필요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비시즌 급여 지원 모색 N분의 1 말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재정지원사업 서류의 간소화 필요
성숙 그룹	지원이 아닌 투자과 자원 확보의 프레임으로	필 요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등 인력 확보가 필요함 운영비와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비 임팩트 투자와 지원 성장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일몰제가 아닌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사업개발비 재정 지원 사업은 유용하다고 여겨짐 직접재정 지원 방식은 유효하고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여김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은 기업에 일률적, 일몰적, 단기 소비성 지원을

		완 점	대한 정부의 공공 투 자로 보아야 함.	지양 • 자금지원 등 고도화된 설계 요청 • 성숙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의 방향성 새롭게 구축 • 사업 기회를 주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부 담에 대한 세금 등의 보완기제가 필요
--	--	--------	--------------------------	---

〈표 5-3-3〉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 성장, 성숙 그룹으로 구분하고,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필요자원,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재정지원사업의 보완점 등을 질문하고 성장단계별로 정리하였다.

1)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 : 창업 그룹

(1)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자원

창업 그룹의 사회적기업은 가장 필요한 자원을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자원’으로 보고, ‘인적자원’과 ‘인건비’를 꼽았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자원으로 언급하였다.

“공간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안정성도 되긴 하거든요.” (G)

“인적 자원. 사람이 필요합니다. 체계랑 프로세스가 있으면 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뭔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H)

“인건비가 제일 크죠. 사업 수주를 하면 거기에 행정 요원 비용이라든가 내부 인건비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은데...” (I)

(2)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 자산의 역할

창업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 자산의 역할’로 보았다. 우선 ‘재정지원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필요에 의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지원은 조합원들과 외부의 시선에서 일종의 신뢰감을 제공함’을 경험하였다.

“정부지원은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요청하는 자료나 하는 건 많잖아요. 시즌 때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G)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보고 또 그래도 좀 힘들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보고...” (G)

“초기 예비사회적기업 같이,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는 것은 조합원들이나 또 저희를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뢰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I)

(3) 핀셋 같이 촘촘한 지원 내용 필요

창업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의 보완점으로 ‘핀셋 같이 촘촘한 지원 내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우선 사업을 ‘세분화시켜 맞춤형 지원’으로 보완하고, ‘정확한 지원 정보를 알 수 있게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작업’을 제안한다. 그밖에 ‘계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비수기 재정지원사업의 제정’, ‘컨설팅에 자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재정지원사업도 좀 세분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분화된 만큼 맞춤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G)

“모든 예산에 시기를 좀 다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절 사업인 경우, 비수기 재정지원 사업을 만들어 달라.” (I)

“컨설팅을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잘 받아봐서 컨설팅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컨설팅에 자부담을 자꾸 넣어서 힘들어요.” (I)

2)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 경험 : 성장 그룹

(1)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자산화에 도움이 되는 자원 마련

성장 그룹의 사회적기업은 가장 필요한 자원을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 기획 전문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정말 이제 공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단순히 지원이 아

니라 각자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요.” (J)

“그냥 컨설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 보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든지 하는 게 필요해요.” (K)

“입찰 외에는 잘 그런 걸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좀 붙으면 좋지 않나” (L)

(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현장에 도움이 큼

성장 그룹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은 ‘현장에 도움이 큼’ 것으로 보았다. 우선 ‘전략 수립에 밑받침이 된 사업개발비’와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이 된 전문인력 지원’의 효과가 컸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개발비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용도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성취하였다.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J)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전문 인력도 저희가 지원 받은 거 그 효과 이상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K)

“사업 개발비는 사업 개발비대로 제품 디자인 등 다 용도에 맞게 저희한테 가장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잘 쓰여진 것 같아요.” (K)

(3) 성장기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의 필요

성장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의 보완점으로 ‘성장기 스케일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의 필요’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케일업을 고민하는 체계와 지원이 함께 필요’하고,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비시즌 급여 지원 모색’이 요청되었다. ‘N분의 1 말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재정지원사업 서류의 간소화 필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스케일 업을 같이 고민하는 체계 자체가 없다는 거. 이 회사의 고민단계가 어디인지까지도 세심하게 들어주고 얘기해 주고 거기다가 맞게 이렇게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게 필요해요.” (J)

“몇 개월간 비시즌 계약직에 좀 더 임금 지원을 해주면 회사도 그때 가서 다른 사람 구하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기술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고...” (K)

“N분의 1 말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한테 좀 효과적으로 좀 많이 배분을...” (L)

3) 지원이 아닌 투자와 자원 확보의 프레임으로 : 성숙 그룹

(1) 자원 투여 방식의 설계가 새롭게 필요함

성숙 그룹은 가장 필요한 자원을 ‘청년 등 인력 확보’, ‘운영비와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비’, 또한 ‘임팩트 투자와 지원’과 ‘성장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몰제가 아닌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을 제안했다.

“저희는 인력 확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청년” (N)

“임팩트 투자, 성장한 기업에게는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M)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 개발비 얼마 같은 거에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운영비와 투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M)

“사회적기업 법인제도 일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지위와 주목적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은 법인세를 계속 면제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고 하는 방식을 거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춘 조건들, 경영 공시라든가 사회적기업 보고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법인세에 대한 감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M)

(2) 지원이라 하지만 투자와 활용으로 받아들임

성숙 그룹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은 ‘지원이라 하지만 투자와 활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사업은 유용’하며, ‘직접재정 지원 방식은 유효하고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을 놓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투자와 활용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M)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일몰식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이 굉장

히 좀 낮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유효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 (M)

“인건비 지원받은 게 지원이 아니고 기업이 미션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은 것” (P)

(3) 재정지원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로 보아야 함

성숙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의 보완점으로 ‘재정지원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로 보아야 함’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률적, 일몰적, 단기 소비성 지원을 지양’해야 하고, ‘자금지원 등 고도화된 설계 요청’이 요청된다. 또한 ‘성숙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의 방향성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며, ‘사업 기회를 주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에 대한 세금 등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자원을 유치해 주고 자원을 동원해 주는 투자들을 어떻게 공공 부분에서 할지에 대한 프레임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계속 비영리나 복지에 대한 재정 지원 프레임으로 사회적 경제를 씌워놓는 ...” (O)

“여전히 일률적이고 일몰 중심적이고 비용중심적이고 단기 소비성 지원을 지양해야” (M)

“자금의 흐름들이나 투여되는 방식들의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때다.” (M)

“기업들의 욕구가 거기 가 있는데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2008년도에 육성법 만들 때 가졌던 창업 시기이니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된 설계로 가고...” (M)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 조직이,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할수록 세금이 커지는 게 지금의 제도예요... 보완 기제가 필요합니다.” (M)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게 사업 설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업 기회를 주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기업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

4.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표 5-3-4〉 서울 혁신형 사업 참여 영향 분석 결과

구분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Q 기업 사례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 혁신형 지원사업	혁신형 사업 효과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추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창기 성장에 도움 옛 것과 현재 것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재정 지원 사업 비교	활용도가 낮고 큰 도움을 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지원으로 디자이너 고용 도움 기타형에는 맞지 않는 일자리 사업 적은 금액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름 뿐인 사업개발비
R 기업 사례	몰입을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	혁신형 사업 효과	도시 계획에 참 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받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과 적극적인 활동 전개 모색을 할 때 도움 전략적인 사업을 위한 규모 있는 지원 혁신형 사업의 적절한 지원 타이밍으로 공유지 활용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부각됨
		재정 지원 사업 비교	초기 안정화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션과 작가들의 일거리로 연결된 일자리 지원사업 제품 혹은 프로그램 라인들을 개발해 준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을 사업의 홍보 및 활동에 대 한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는 장으로 활 용함

1)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 혁신형 지원사업 (Q 기업의 사례)

(1)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추어 지원 : 혁신형 사업 효과

Q 기업의 사례에 의하면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초창기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며, ‘옛 것과 현재 것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과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등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추어 지원’을 연계해 목표한 결과를 도출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에 이제 혁신형 사업 지원해라 해서 선정은 12년에 됐고 저희도 사업을 그 비용을 쓰는 13년부터인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고 인지도도 좀 낮았는데 혁신형이 돼가지

고 그때 당시에는 좀 큰 덩어리의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 하우스라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Q)

“저희가 낡은 빈 집을 빌려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에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 하우스라는 이름이 저희 회사에게는 이제 굉장히 좀 알려진, 인지도가 이제 생기게 하는 그런 좀 강력한 공간의 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걸 혁신형 사업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Q)

“마을 안에 있는 낡은 빈 집. 서울이지만 좀 깊숙한 동네에 있는 낡은 빈집이라는 콘셉트. 그리고 그 2층에는 주인 할아버지가 또 들어와서 사셨거든요, 저희가 1층만 빌렸었는데. 손님만 오면 기웃 기웃하면서 심심하시니까 종로의 역사라던가 동네의 역사를 막 알려주시면서. 근데 이게 이제 마을이나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하신 분들한테는 그 모습이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되게 뭔가 그런 사례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관광공사에서도 대상을 받고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하여튼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Q)

“이게 어쨌든 혁신형 사업이니까 의무감으로 이제 시민한테 개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갤러리는 오픈 갤러리를 한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받으면서 그 벽에다 그림을 걸어놓고 주말에는 동네 주민한테 갤러리로 오픈을 하니 까 다행히 외국 예술가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 방에 오고 뭐 이 집에 오고, 동네에서도 애기들이 먼저 왔어요. 와서 이제 애기들이 막 예술가랑 막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애를 찾으러 부모들이 와요. 그리고 이게 할머니들도 오고... 세대가 다른 구성원이 워크숍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사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다른 구성원들을 섞는 거에 대한 이제 재미나 의미를 발견했어요.” (Q)

“혁신형 사업은 저희가 딱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그걸로 해서 목돈을, 저희 그때 생각할 때 굉장히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확실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혁신형 사업은 그때 1억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거를 아예 시작하고 싶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단계에서는 되게 좋은, 잊을 수 없이, 제가 10년을 돌아볼 때 저희가 받은 지원을 꼽아볼 때 정말 도움이 됐던 그런 손꼽히는,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Q)

(2) 활용도가 낮고 큰 도움을 받지 못함 : 재정지원사업과 비교

Q 기업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은 ‘전문인력 지원으로 디자이너 고용의 도움’은 있었으나, ‘기타형 사회적기업에 맞지 않는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적은 금액을 모

두에게 나눠주는 이름뿐인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인한 '활용도가 낮고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지원으로 이해하였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이어서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일자리 있잖아요, 그 지원은 안 받고 전문인력만 한 명 받았어요. 전문인력 지원은 도움이 당연히 됐죠. 저희가 디자이너나 이런 친구들을 뽑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보탬이 되니까” (Q)

“이름은 사업개발비지만 제 느낌에는 진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됐었어요. 지원팀이 많으면 약간은 이제 나눠주는 느낌도 나고 해서 금액도 그렇게 좀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이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계획까지는 연결이 안 되죠.” (Q)

“혁신형 사업은 금액적으로도 크고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독 사업이 가능하지만.” (Q)

2) 몰입을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 (R 기업의 사례)

(1)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발돋움 : 혁신형 사업 효과

R 기업의 사례에 의하면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은 R 기업을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청년들과 적극적인 활동 모색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며 ‘전략적인 사업을 위해 규모 있게 지원’해주었고, ‘혁신형 사업의 적절한 지원 타이밍으로 공유지 활용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혁신형 사업, 2013, 14년에 합쳐서 9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청년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을 때 혁신형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홍대 인근에서 매주 주말마다 해결사들의 수리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가구 수리 해결사가 되고, 시계 수리, 만년필 수리, 옷 수리, 구두 수리, 이렇게 각종 동네에서 활동하는 수선사들이랑 같이 수리 병원을 운영했거든요. 수리 병원에 거점이 되면서 쇼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혁신형 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이 연남동에 동진 시장이라고 70년대에 조성된 시장이 있는데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요즘 막 이렇게 북고 트렌드에 힘입어서 외곽 가게들은 어쨌든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내부 가운데 통로가 비어 있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거기에 공간을 조성하고 저희는 또 거기서 쇼룸을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다른 생산자들을 그곳에 모아서 사회적경제 쪽에서의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시

장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의 혁신형 사업은 그렇게 시장 모델을 만드는 거로 사업 제안을 내서 선정돼가지고 연남동의 동진시장을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3년 사업은 좀 실패했어요.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그룹들도 그 안에서 가치를 많이 못 찾고 운영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해서 2년 만에 접거든요. 그러다 2014년에 비축기지 공원화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고 계속 시민들이 운영하는 공간들을 조금 더 만드는 게 조직의 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R)

“14년에 혁신형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거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이행기 공간들을 좀 탐방하고, 그래서 그 사례들을 공유하고, 관련된 리포트를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방식의 사업 계획을 냈어요. 시민들과 함께 이런 성과를 만들고 싶고, 생산자들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해 10월에 베를린을 다녀와요. 돌아와서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사업을 진행하는데 함께 한 시민들이 이 라운드 테이블을 지속하면서 시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에 좀 대항하는 활동들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R)

“이제 회사는 업사이클링 제작소를 만드는 거에서 시민문화 공간을 만드는, 생산자들의 거점 기지 운동으로 활동으로 확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2014년에 혁신형 사업을 활용해서 다녀왔던 독일 그리고 제작소 모델 설계하는 일,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형 사업은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몰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어쨌든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효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R)

“저희 회사는 이제 혁신형 사업하면서 더더욱, 이것도 타이밍의 문제였지만 그냥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됐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으로의 독보성보다는 야, ‘스콧해가지고 진짜 공유지를 저렇게 쓰고 관련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조직하는구나’가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 운동하는 조직 혹은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R)

(2) 초기 안정화에 기여함 : 재정지원사업과 비교

R 기업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해 ‘뮤지션과 작가들의 일거리로 연결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제품 혹은 프로그램 라인들을 개발해준 사업개발비’와 ‘재정지원을 사업의 홍보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함’으

로 기업의 '초기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나 작가들 같은 경우에 일거리를 만들고 그게 또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었음.” (R)

“사업개발비는 저는 좀 전략적이었어요. 사업개발비 자체가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제품 혹은 프로그램 라인들을 개발하는 거를 조직 자체에서 좀 목표로 하면서 시도했어요.” (R)

“또한 심사 때 기업의 가치를 심사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일, 그런 것도 되게 큰 미션이라고 생각했어요.” (R)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제언 및 함의

6

결론 및 제언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표 6-1-1> 결과요약

구분	분석 결과	
서울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현황	재정지원내역 (2012~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사회적기업은 2012년 174개소 -> 2020년 51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정부지원금의 세부 내역별 금액이 다소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기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인증시기는 2007년 12개소(2.4%) -> 2020년 70개소(15.6%)로 대체적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263개소(51.9%)로 편중됨. 다음으로 기타형 156개소(30.8%) > 혼합형 33개소(6.5%)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33개소(6.5%) > 지역사회 공헌형 22개소(4.3%) 순으로 나타남. 조직형태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상법」에 따른 회사가 328개소(64.7%)로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남. 사회적기업의 사업지역별로 지역적 편차가 나타남. 영등포구 48개소(9.5%) > 은평구 38개소(7.5%) > 종로구 32개소(6.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강북구 6개소(1.2%), 노원구 7개소(1.4%), 양천구 10개소(2.0%)는 2%를 넘어서지 못함.
	지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정부지원사업 14,809백만원, 민간지원사업 30,406백만원으로 민간지원사업이 정부지원사업의 2배 수준임. 2020년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은 총 14,809백만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5,900백만원(39.8%) > 전문인력 지원 3,865백만원(26.1%) > 사업개발비 지원 2,721백만원(18.4%) > 사회보험료 지원 1,800백만원(12.2%) > 기타 정부지원(혁신형사업) 523백만원(3.5%) 순으로 나타남. 2020년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의 민간지원금은 총 30,456백만원이며, 기타지원 18,314백만원 > 일반기부 10,064백만원 > 모기관지원 1,094백만원 > 기업후원 935백만원 > 민간금융 지원 52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재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매출액은 2,085,421백만원으로, 평균 4,146백만원, 중앙값 556백만원(=556,774천원)임. 그 중 평균 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기업 1개소를 제외한 결과, 평균 2,199백만원으로 금액이 1/2로 감소하였으나, 중앙값 556백만원(556,940천원)으로 소폭 증가함. 총 당기순이익 26,363백만원, 평균금액 52백만원으로 나타남. 총 영업이익은 5,924백만원, 평균금액 12백만원으로 나타나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 보다 약 4.5배 높게 나타남.

	<p>고용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유급근로자는 13,461명(100.0%)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7,980명(59.3%)이 비취약계층 근로자 5,481명(40.7%)보다 약 20%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977천원으로, 전체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 2,265천원 보다 낮고, 비취약계층의 평균임금 1,718천원보다 높음. • 평균 근로시간은 전체 총 유급근로자는 34시간, 취약계층 근로자 32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36시간으로 나타남.
	<p>사회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에서는 큰 편차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은 기타 91개소(15.2%) > 교육 75개소(12.5%) > 문화예술 50개소(8.4%) > 사회복지 및 고용 34개소(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보육 2개소(0.3%), 산림보전 및 문화재 4개소(0.7%) 등 1% 이하의 유형도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3,784,724명(100.0%)으로, 취약계층 3,369,014(89.0%)이 비취약계층 415,710(11.0%) 보다 약 9배에 달함.
<p>재정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p>	<p>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차이 분석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사회적 성과 인식이 높았음.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의 여부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에 비해 경제적 성과 인식과 사회적 성과 인식이 모두 높았음.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경제적 성과 인식과 매출액 둘 다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매출액이 높게 나타남. •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3개이상 중복 참여기관 > 2개 참여기관 > 1개 참여기관 > 미참여 순으로 나타남.
	<p>재정지원사업 효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지원사업 총액은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음. • 조직 부분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거버넌스 역량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업무성과와 경영지원시스템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재정지원사업 총액도 조직의 모든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생태계 부분에서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재정지원사업 총액은 생태계 모든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p>서울시 사회적 기업 포커스 그룹 인터뷰</p>	<p>코로나 팬데믹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사회적기업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으며, 반면에 몇몇 업종은 급격한 매출 상승을 경험하기도 함.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지하고 버텨나가고 있으며, 코로나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음.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위기가 오면 모색하고 자구책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사료됨.
	<p>예비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전환 그룹은 사회적기업 이행과정에서 더 큰 책임감이 주어

<p>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p>	<p>지고 생태계 구축의 의지가 생겼으며,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의 영향을 받고 있음. 재정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은데 재정지원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종료 그룹은 지정종료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의 피로도를 피력함. 재정지원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 당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나 서류행정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으므로 인증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p>성장단계별 재정지원사업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을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여기고 있었으며 지원은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자산의 역할을 하였음. 더욱 더 핀셋 같이 촘촘한 지원이 필요함. 성장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성장을 경험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현장에 도움이 컸으므로, 성장기 스케일 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으로 보완되어야 함. 성숙 그룹은 지원이 아닌 투자와 자원 확보의 프레임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함. 지원이라 하지만 투자와 활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로 보는 프레임의 변화가 요청됨.
<p>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 혁신형 지원사업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추어 지원을 하였고, 반면 재정지원 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큰 도움을 받지 못함. 몰입을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은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었으며, 재정지원사업 또한 초기 안정화에 기여함.

제2절 제언 및 합의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한 FGI를 진행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효과성의 내용과 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반적으로 미참여 사회적기업보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2012-2020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내역에서 살펴본 대로, 재정지원금 액수는 인증사회적기업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결과로 이어져,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별 재정지원사업의 참여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 보다 **경제적 성과 인식과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이 된 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 FGI의 결과와 함께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지원이 필요함이 더욱 강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경제적 성과 인식과 사회적 성과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사업개발비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용도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는 성장 그룹의 인터뷰 내용과, 성숙 그룹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사업개발비 재정 지원 사업은 유용하다’, 그 외에도 제품 혹은 프로그램 라인들을 개발해준 사업개발비, ‘사업 개발비로 워크북을 제작하여 사업에 도움이 됨’ 등 여러 인터뷰 내용을 통해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출액**에서 참여 그룹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지원 사업은 직접적 경제 성과인 매출액으로 나타나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명확한 법정 금액(4대 보험 기준, 1인당 월 183,590원 지원)을 기준으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 없이 최저요율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업이 12개월 지원인데 반하여 5년 동안 4년간 지원하며 비교적 간소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방식의 합리성과 효율로 인해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정지원사업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성과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점** 또한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지원의 4개 부분인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에 중복 참여한 기업에 경제적 성과가 높았으며, 이는 재정지원과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내며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한 것으로 예측된다. 즉, 용도에 따라 세분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총액은 개인, 조직, 생태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지원사업은 4개 재정지원사업과 더불어 정책자금, 기타 정부지원 및 서울시 사업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 사업과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정부지원사업의 총액으로 범위를 넓혀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는 '재정 지원은 조합원들과 외부의 시선에서 일종의 신뢰감을 제공'하여 여러 성과에 영향을 끼치고,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자산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FGI의 결과와 긍정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이 **개인 요인인 임파워먼트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중 혁신형 사업이 '청년들과 적극적인 활동 전개 모색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데서, 개인 요인, 즉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임파워먼트에 미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요인인 거버넌스 역량**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총액이 조직요인인 거버넌스 역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회사는 혁신형 사업하면서 더욱 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공유지를 저렇게 쓰고 관련된 시민들을 모아서 저렇게 조직하는 구나', '기업의 인지도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 혁신형 지원사업'의 의미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 요인인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정부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혁신형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그룹으로 발돋움'하였다는 의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여도의 영향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정부지원사업 총액에 포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개인, 조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FGI를 통하여는 “전략적인 사업을 위한 규모 있는 지원”으로, 특히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형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할 목적으로 지원되는데, 재정지원금과는 차별되게 지원금 액수가 크고, 특히 사회적경제 규모화(Scale-up)의 일환으로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사업은 정부지원금으로 포함되어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을 통해 개인, 조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FGI를 통해서 성장단계별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각 **성장단계별 필요 자원**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창업 그룹**의 필요 자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자원’으로 ‘인적 자원’을 꼽았고,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였다. **성장 그룹**은 ‘단순 직접지원이 아니라 자산화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공간 마련비용’,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사업기획 전문가’로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숙 그룹**은 ‘청년 등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운영비와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비’, ‘임팩트 투자와 지원’, ‘성장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일몰제가 아닌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단계별 필요자원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 그룹**에 의하면 재정지원은 ‘초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자산의 역할’로 재정지원 자체가 ‘신뢰감을 제공’ 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성장 그룹**은 구체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을 ‘전략수립의 밑받침’으로 삼았으며, ‘용도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얻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지원을 통해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성숙 그룹**은 그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사업은 유용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직접 재정지원 방식은 유효하며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을 긍정적으로 제언하였다. 성장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자리창출 지원은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효과성에서 유의미한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맞춤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과정을 살펴본 FGI를 통해 **인증 이행 과정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인증전환 그룹**은

‘재정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까다로운 기준의 전문인력 지원비’와 ‘나눠주기 식의 사업개발비’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지정중단 그룹**은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의 피로도’로 인해 인증으로 이행하지 않고 중단했음에도 ‘예비사회적기업 당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인력이 잘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음’을 확인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의 효과를 유일하게 확인해주었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워크북을 제작’하여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행과정의 두 그룹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효과성에 대한 상이한 성과에 관하여 추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재정지원 방식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FGI를 통해 ‘직접 재정지원 방식은 유효하고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과, 아울러 ‘일률적, 일몰적, 단기 소비성 지원에 대한 지양’을 언급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비용 중심적인 지원’도, ‘창업과 성장 도입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없애면 안 되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제 막 모색을 해야 되고 개념을 잡아 가야 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재정 지원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마중물’이 되어줘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사회적 경제 단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 직접재정 방식의 지속적인 증가와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모두에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스펙트럼 그리고 성장 단계들이 다원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미에서 **창업 그룹**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정확한 지원 정보를 알 수 있게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작업’을 통해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인건비 등 가장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장 그룹**은 ‘스케일업을 고민하는 체계와 지원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특히 ‘스케일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의 필요’로 사업 기획을 도울 전문가와 이를 통해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숙 그룹**은 ‘자금 지원 등 고도화된 지원사업의 설계가 요청’되며, 특히 ‘성숙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의 방향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공공 부문이 협력을 해야 되는 성

속 그룹에 대해 재정 지원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의 거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성숙 그룹과 어떻게 거래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요청 된다'고 하겠다.

셋째, **인적자원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활동할 사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시급하다(김성기 외, 2014).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다. 우선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단계에서 여전히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며 그러므로 '인건비 지원'은 가장 필요한 지원 중의 하나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의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으로 '기타형에는 맞지 않는 일자리 사업'의 문제, 계절 사업의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비시즌 급여 지원 모색'이 요청되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의 보완기제가 필요'하고, 일자리창출형 인건비 지원 시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프리랜서 경력은 국가에서 원하는 증명이 안 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기업에서 보고되었으며,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서류' 등, 행정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나눠주기가 아닌 효과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적은 금액을 모두와 나누는 이름뿐인 사업개발비'가 아닌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서울시 혁신형 사업에 주목**하게 되는데, '사업개발비는 보통 많은 기업에 배분하여 필요한 만큼의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데, 혁신형 사업은 규모 자체가 다르며, 특히 사업 초기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클 때, 혁신형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시도와 업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혁신형 사업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며, '전략적인 사업을 위한 규모 있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확대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다섯째, **재정지원 프레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FGI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원이 아닌 투자와 자원 확보의 프레임'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하거나 국가가 해야 할 문제를 예방하고 같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주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다운 도전과 육성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아닌 다른 프레임으로 자원의 연계점에서 모색을 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일선 기업의 인식과 욕구와는 달리, '정부의 지원정책은 여전히 2007년에 머물러 있으므로 조금 더 고도화된 설계로 가야할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소상공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식 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사회적기업과 대체로 비슷하게 소규모이며, 정부지원 프레임을 지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의 법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 소상공인이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법제처, 2021). 소상공인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규모 및 정부지원으로 인해 소셜 벤처나 사회적기업과도 혼동되어 불리고 있다.

〈표 6-2-1〉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명	개요	예산(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13,000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10,000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11,000

자료: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소상공인의 정부 지원정책은 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자금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이나 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및 환경과 같은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미선·조원희, 2021). 〈표 6-1-2〉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주로 자금 지원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는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4가지 지원인 일자리창출, 전문가지원,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은 인건비처럼 비용 중심의 지원 내용인 반면에, 소상공인은 융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FGI를 통해 기존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방식을 ‘일률적, 일몰적, 단기 소비성 지원을 지양’하여 ‘정부 투자’와 ‘자금 지원 등 고도화된 지원사업 설계로 요청’한 내용을 상기해보면, 소상공인의 자금 형태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비교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정책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4대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서울 혁신형 사업을 포함한 정부지원이 지역 사회 발전 및 기여도에 유의미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혁신형 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회적경제 1.0(2012-2018) 발전 전략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2.0 단계에서도 확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로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탐색까지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행된 본 연구가 향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보다 고도화된 지원 방식과 정책으로 수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본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로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더욱 심화된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이며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 강동형(2013).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의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용노동부(2021).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 및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 김기철·서병덕(2017). 사회적기업 특성과 CEO의 경영역량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평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4(2): 47-80.
- 김성기·김정원·변재관·신명호·이견지·이문국·이성수·이인재·장원봉·장종익(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흥천: 아르케.
- 김숙연·김재준(2013).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경상교육연구, 10(4): 217-239.
- 김영배·하성욱 (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조사: 핵심성공요인, 환경특성, 최고경영자 역할과 외부자원 활용. 기술혁신연구, 8(1): 125-153.
- 김영종(2007). 사회복지조사론: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김영천(2006).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운영사례 질적연구: 운영유형별 핵심성공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107-137.
-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3): 135-163.
- 김정인(2014).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81-212.
- 김창범·이찬영(2015). 한국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8(4): 1715-1738.
- 김혜원(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8(1): 209-238.
- 김희철(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7): 1797-1812.
- 나선영·이성근(2014). 사회적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95-112.
- 도수관·박경해(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 분석: 2007-2011년

-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499-524.
- 박다인·박찬희(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 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 연구, 13(6): 177-189.
- 법제처(20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시(2021). 사회적경제 관련 내부자료.
- 서울시(2021).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 선남이·박능후(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 심창학(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61-85.
- 이용탁(2009).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2(2): 5-28.
- 이준희(2016). 조직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5(2): 97-133.
- 이철승·이윤철(2016).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협업동기·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창조와 혁신, 9(1): 115-155.
- 임경수(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 실증모델 구축 및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5(3): 1436-1441.
- 장성희·반성식(201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3479-3496.
- 장용석·김희성·황정윤·유미현(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CS컨설팅&미디어.
- 장원봉(2008). 한국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일 사회적기업연구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전미선·조원희(2021).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9(2): 267~296.
- 정규진·서인석·장희선(201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171-202.
- 정선희(2004).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서울 : 다우출판사.
- 정선희·조상미(2018).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11(3): 125-162.
- 정은경(2012).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 역량,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 간의 관계. 청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정희수·조상미(2021).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 연구, 14(1): 207-245.

- 조상미 · 권소일 · 김수정(2012). 조직 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3): 29-50.
- 조상미 · 김진숙 · 강철희(2011). 사회적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 38(2): 1-38.
- 조상미 · 선민정 · 임근혜 · KANG CHAE RYUN(2018). 사회적기업의 성과, 무엇으로 보는가?: 경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81-128.
- 조상미 · 정선희 · 이재희 · 하정은(2012). 비영리 사회적 기업 변화경험 및 운영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143-178.
- 조상미 · 이재희(2015).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중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89-125.
- 최석현 · 남승연(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133-155.
- 최준규(2013).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정책도구 효과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홍근 · 유연우(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시 남동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351-378.
- 한국노동연구원(2020).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2018년도 사업설명회 자료.
- 한상일(2013).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창조와 혁신, 6(2): 57-79.
- 홍효석 · 김예경(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16(1): 1-29.
- 황정윤 · 장용석(2019). 사회적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사회적기업연구소.
- 황정윤 · 조희진(2016). 사회적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과학연구, 22(3): 238-277.
- Austin, J.E., & Stevenson, H., & Wei-Skillern, J. (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 (1), 1-22.
- Bagnoli, L., & Megali, C. (2011). Measuring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1): 149-165.
- Bess, G. (1998). A first stage organization life cycle study of six emerging non-

- profit organizations in Los Angel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2(4): 35-52.
- Borzaga, C. & J. Defourny, 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50-370.
- Chandler, Alfred D.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Cambridge, MA.
- Connolly, P. (2006). *Navigating the organizational lifecycle: A capacity-building guide for nonprofit leaders*. Washington, DC: BoardSource.
- Defourny, J., Favreau L. & Laville, J.-L, (2001). Introduction to an International Evaluation, in Spear, R., Defourny, J., Favreau, L. and Laville, J.-L. (eds).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td, 3-28.
- Gray, B., & Ariss, S. S. (1985). Politics and strategic change across organizational life cyc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707-723.
- Greiner, L. E. (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Harvard Business Review*, 76(3): 55-60.
- Hanks, S. H. & Watson, C. J. & Jansen, E. & Chandler, G. N. (1993). "Tightening the lifecycle construct: A taxonomy study of growth stage configurations in hightechnology organiz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2): 5-29.
- Hannan, M. T. & Freeman. J. (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49-164.
- Hwang, H. & Powell, W. W. (2009). The Rationalization of Charity: The Influences of Professionalism in the Nonprofit Sect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2): 268-298.
- Jeannine J. & Jennifer P. (2010). *The Life Cycle of Social Enterprise Financing in Succeeding at Social Enterprise*, NY: Jossey-Bass.
- Kazanjian, R. K., & Drazin, R. (1989). An empirical test of a stage of growth progression model, *Management Science*, 35(12): 1489-1503.
- Kazanjian, R. K., & Drazin, R. (1990). A stage-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137-150.

- Katz, D. & Kahn, R. L.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Y: John Wiley & Sons.
- Miller & Friesen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rporate Life Cycle, *Management Science*, 30(10): 1161-1183.
- Morgan, D.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 Morgan, D. L., & Krueger, R. A. (1993). When to use focus groups and why. In D. L. Morgan (Ed.), *Successful focus groups: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3-19), Newbury Park, CA: Sage.
- Oster, S. M. (1995). *Strategic Manag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ory and Ca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ole, M. S., & Van de Ven, A. H.(1989). Using paradox to build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62-578.
- Quinn, R. E. & K. Cameron. (1983). Organizational life cycles and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 Some preliminary evidence. *Management Science*, 29(1): 33-51.
- Smith, K. G., & Mitchell, T. R. & Summer, C. E. (1985). Top level management priorities in different stages of the organizational life cyc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4): 799-820.
- Teasdale, S. (2011). What's in a Name? Making Sense of Social Enterprise Discourse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7(2): 99-119.
-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4th edition), Boston: Irwin/McGraw-Hill.
- Van de Ven, A. H. & Hudson, R. & Schroeder, D. M. (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1): 87-108.
- Wolch, J. R. (1990).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 구본준(2002). 남달라서 더 돋보이는 '사회적기업' 오픈에스이-‘장애인 직원을 더 우대해요’. (2002.04.2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30272.html

- 고용노동부(2021), "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9. 8).
서울시 홈페이지 (2021).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3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1.) <https://www.moel.go.kr>

부록 <<

부록1.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서식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3. 24>

① 기업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고용보험관리번호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부록 2.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설문지

No	
----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협력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정책연구토론회 등의 장에서 공유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제언이 풍부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문항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사회적기업 관련 개인, 조직, 생태계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지금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발전적 방향을 위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의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조상미 교수 연구팀 (02-3277-6637)
문의: sangmicholab@gmail.com

I - 1. 귀사의 성과에 대한 항목입니다.

작성기준	정부지원금	자본금	연간매출액
2021년 현재	천원	천원	천원

I - 2. 평소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아니다		보통			우수	
1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지속적으로 영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1	2	3	4	5	6	7
3	지속적으로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	1	2	3	4	5	6	7
5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1	2	3	4	5	6	7

II- 1. 귀사의 성과에 대한 항목입니다.

작성기준	유급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인건비지원 근로자 수
2021년 현재	명	명	명

II- 2. 평소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아니다		보통			우수	
1	취약계층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지역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	1	2	3	4	5	6	7
3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1	2	3	4	5	6	7
5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률이 증가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7	윤리적 기업과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Ⅲ-1.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조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4	5
2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경험을 신뢰한다.	1	2	3	4	5
3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사는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4	팀원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5	팀원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믿는다.	1	2	3	4	5
6	관리자로서의 나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7	어떤 경우여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8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9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0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11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12	타인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13	상사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가 힘들다.	1	2	3	4	5
16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는 어려운 일이다.	1	2	3	4	5
17	업무를 수행하는 나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18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2	3	4	5
19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20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21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2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3	정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1	2	3	4	5
24	대부분의 과제들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25	업무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5
26	하는 일의 가치에 가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27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8	하는 일은 대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29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4	5
30	일은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	1	2	3	4	5
31	일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	1	2	3	4	5
32	업무는 목표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2	3	4	5

Ⅲ-2.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업무기법이나 방법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1	2	3	4	5
3	기존방식이나 도구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1	2	3	4	5
4	자원을 획득, 활용함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1	2	3	4	5
5	다른 사람의 혁신적이고 장래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	2	3	4	5
6	새로운 일과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7	반드시 해낸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1	2	3	4	5
8	보유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도 결집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1	2	3	4	5
9	유망아이템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과감하게 행동한다.	1	2	3	4	5
10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안정성보다 높은 성과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1	2	3	4	5
12	해야 할 일에 대해 위험이 따르더라도 추진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활동을 수행한다.	1	2	3	4	5
14	투입 가능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한다.	1	2	3	4	5
15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1	2	3	4	5
16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1	2	3	4	5
17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이 있다.	1	2	3	4	5
18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정,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19	개인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1	2	3	4	5

IV-1.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한다.	1	2	3	4	5
2 업무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3 부여된 임무를 상사의 기대에 맞게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4 조직의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5 수립한 목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1	2	3	4	5
6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	1	2	3	4	5
7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8 동료들을 잘 돕는다.	1	2	3	4	5
9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조직에 필요한 일들에 솔선 수범한다.	1	2	3	4	5
10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신입직원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1	2	3	4	5
11 업무량이 많은 동료들을 도와준다.	1	2	3	4	5
12 상사의 일을 돕는다.	1	2	3	4	5
13 팀 향상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는다.	1	2	3	4	5
14 직원은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15 다른 직원들에 비해 또는 주어진 쉬는 시간보다 자주 쉰다	1	2	3	4	5
16 업무 참여도는 기준 이상이다.	1	2	3	4	5
17 직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리 알린다.	1	2	3	4	5
18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통화를 오래, 많이 한다.	1	2	3	4	5
19 불필요한 휴가 및 병가를 쓰지 않는다.	1	2	3	4	5
20 주어진 휴식시간 이외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1	2	3	4	5

IV-2. 평소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아니다		보통			우수	
1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6	7
2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조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	6	7
3 이사회(운영위원회)와 직원간의 효과적인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6	7
4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정보공유 등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1	2	3	4	5	6	7
5 지역사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	--------------------------------	---	---	---	---	---	---	---

IV-3. 평소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아니다			보통			우수	
1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 및 채용 기준과 직무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있다.	1	2	3	4	5	6	7	
2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5	6	7	
3	직원의 급여와 각종 대우에서 동종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1	2	3	4	5	6	7	
4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1	2	3	4	5	6	7	
5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통하여 표준화된 제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6	7	
6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은 타 조직에 비하여 높다.	1	2	3	4	5	6	7	
7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마케팅 또는 판매촉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9	각종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6	7	
10	업무와 관련된 사무기기·컴퓨터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	2	3	4	5	6	7	
11	효과적인 재무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6	7	
12	사업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기획 및 집행 절차가 구축되어 있다.	1	2	3	4	5	6	7	

V-1.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업이 있는 지역의 의회(지자체 등)의 의사결정에 포함된다.	1	2	3	4	5
2	지역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1	2	3	4	5
3	지역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4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5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할 것을 격려 받고 있다.	1	2	3	4	5
6	사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교육, 캠페인, 사업 보고회 등)를 마련한다.	1	2	3	4	5
8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1	2	3	4	5

9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10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V-2.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방자치에서 정한 조례를 지킨다	1	2	3	4	5
2	나는 지역사회에서 범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한다.	1	2	3	4	5
3	나는 지역 내 갈등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을 신뢰한다.	1	2	3	4	5
5	지역의 단체장(서울시장, 구청장 등)을 신뢰한다.	1	2	3	4	5
6	지역의 공무원을 신뢰한다.	1	2	3	4	5
7	가족을 신뢰한다.	1	2	3	4	5
8	주변 이웃을 신뢰한다.	1	2	3	4	5
9	직장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신뢰한다.	1	2	3	4	5
10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각종 위험(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1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1	2	3	4	5
12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13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14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15	우리 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1	2	3	4	5
16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17	우리 지역내 갈등 및 문제는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1	2	3	4	5

V-3. 귀하의 생각에 가장 부합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자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우리 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우리 회사는 공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우리 회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통계처리를 위함이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VI-1. 귀사의 설립년도 및 인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설립년도(년 월), 인증년도(년 월)

VI-2. 귀사의 조직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민법상 법인(사단/재단) ② 민법상 조합(협동/영농) ③ 비영리 단체
- ④ 사회복지법인 ⑤ 상법상 회사(주식/유한/합자)

VI-3. 귀사의 주요 수익사업 업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방과 후 교육 ② 전문교육 ③ 장애인교육
- ④ 보건 ⑤ 사회복지 ⑥ 재활용
- ⑦ 청소 ⑧ 집수리 ⑨ 보육
- ⑩ 공연예술 ⑪ 관광 ⑫ 가사간병지원
- ⑬ 음·식료 제조 ⑭ 택배 ⑮ 일반 제조
- ⑯ PC·소모품 ⑰ 지역개발·컨설팅 ⑱ 출판·인쇄·복사용지
- ⑲ 기타서비스

VI-4. 귀사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일자리 제공형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혼합형
- ④ 지역사회 공헌형 ⑤ 기타형

VI-5. 2020년 기준 귀사의 재정자립도(순수 영업매출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 추정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 이상 ② 81~100% 수준 ③ 61~80% 수준
- ④ 41~60% 수준 ⑤ 21~40% 수준 ⑥ 1~20% 수준
- ⑦ 외부 의존

〈코로나 영향에 대한 질문〉

VI-6. 코로나 이전(2019)과 비교할 때 귀사의 자금 여건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호전 ② 다소 호전 ③ 비슷 ④ 다소 악화 ⑤ 매우 악화

VI-7. 코로나 이전(2019)과 비교할 때 귀사의 인력 여건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호전 ② 다소 호전 ③ 비슷 ④ 다소 악화 ⑤ 매우 악화

VI-8. 코로나 이전(2019)과 비교할 때 귀사의 매출(판로)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호전 ② 다소 호전 ③ 비슷 ④ 다소 악화 ⑤ 매우 악화

VI-9. 귀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 ① 받고 있음 ② 받고 있지 않음

9-1. (9번 문항에서 ①받고 있음을 체크한 분만 응답)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수 응답 가능)

- ① 자금지원 ② 금융지원 ③ 인력지원 ④ 물품지원 ⑤ 컨설팅 지원 ⑥ 판로지원

9-2. 9-1의 지원(들)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귀사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 사항〉

거주 권역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S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세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동거
부양 가족	① 있음 ② 없음
직급	① 대표(사장/이사장) ② 임원(상무, 전무, 경영이사) ③ 중간관리자(부장, 차장, 팀장, 과장, 대리급) ④ 사원 ⑤ 기타 _____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600만원 ⑦ 601-700만원 ⑧ 701~800만원 ⑨ 801-900만원 ⑩ 901만원-1,000만원 ⑪ 1,001만원 이상 ⑫ 기타/무응답

**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서울시 사회적기업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No	
----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 질적 연구

1. 진행일시	년 월 일 (장소 : _____)
2. 진행시간	: ~ :
3. 조사자	

I. 개요

1.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II. 사회적기업 관련

1. 어떤 요인들이(전환, 중단, 창업, 성장, 성숙)에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 조직적, 네트워크, 재정지원 측면
2. 사회적기업을 (전환, 중단, 창업, 성장, 성숙) 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 개인의 변화, 조직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3.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셨습니다?
4. 사회적기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Ⅲ. 재정지원 관련

1. 사회적기업의 서울시 재정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은 현장에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지원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3. 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향후 사회적기업지원 사업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서울 혁신형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은 어떠하십니까?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